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취한다.



‘한수’가 ‘한 술’ 더 뜨다
‘한수’ SECRET KEY

2021학년도 한수 파이널 12회 모의고사
주요 문항 분석지

#Chapter 1. 오답률 Best 5, “선택지 판단” 집중 분석

[참고] 이 문항들은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자, 동시에 학생들이 공부함에 있어 의미가 있는 문항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사실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은 낯선 문제를 보며 문제 풀이의 감을 유지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모의고사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얻어간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도 문항이라 함은 학생 개별마다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틀린 것과 대응하기보다는 이 '모의고사에서 이런 점을 얻어가야 하는구나.' 정도의 생각으로 이 분석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오답률 예측		해당 문항	
오답률 5위	24%	18번	(독서 : 사회) - 세부 일치
오답률 4위	27%	19번	(독서 : 사회)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오답률 3위	35%	41번	(독서 : 과학)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오답률 2위	47%	30번	(독서 : 인문) - 세부 추론
오답률 1위	50%	29번	(독서 : 인문) - 지문의 견해와 <보기>의 견해 비교 분석

[문학] 현대시 :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 고전소설 : 작자 미상, '창선감의록'

[문법] 12번, 13번, 14번

[독서] 사회 지문 : 불공정 약관의 무효화와 관련된 원칙 (해설 + 분석 자료)

#Chapter 2. '영역 별 주요 지문' 집중 분석 참고

[오답률 5위(24%) 예측] : 독서-사회 18번 문항 (구체적인 것은 지문 분석 때!)

[세부 일치]	
[Killer-Point]	<p>18.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p> <p>① 약관에 삽입된 포괄적 면책조항을 전부 무효로 하는 해석이다. ② 사업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의 작성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③ 약관 조항에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분까지 유효로 간주하는 해석이다. ④ 하나의 약관 조항에도 잔부 유효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한 해석이다. ⑤ 어떤 약관 조항이 불공정한 내용을 포함하면 나머지 내용만으로는 효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정답 : ④]</p> <p>'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겠으나, 그와 함께 '잔부 유효 원칙'의 개념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정답 선지를 헛갈리지 않고 찾을 수 있는 문제였다.</p> <p>'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이 무엇인지는 다들 잘 파악했을 것 같다. 그런데 '잔부 유효 원칙'을 헛갈려서, 정확히 말하면 잔부 유효 원칙의 적용 가능 범위를 너무 한정적으로 생각해서 정답 선지를 넘긴 학생들이 있었을 것이다.</p> <p>이건 정보가 제시되는 위치와 연관이 있다.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은 3문단에 제시되었고, 잔부 유효 원칙은 2문단부터 제시되었다. 내용의 층위를 보면 '조항' 안에 '특정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조항'을 다루는 부분에서 '잔부 유효 원칙'이 제시되고 '특정 내용'을 다루는 부분에서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의 개념이 제시되니, 자연스럽게 두 개념도 층위를 나눠서 정리하게 되고 둘을 연결시켰을 때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다.</p> <p>'잔부 유효 원칙'은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유지하는 원칙이다. 즉 약관에서 일부 조항을 무효로 하고 나머지 조항을 유지하든, 조항에서 일부 내용을 무효로 하고 나머지 내용을 유지하든 두 경우 다 잔부 유효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p> <p>'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은 어떤 조항에서 특정 내용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로 조항을 유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잔부 유효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p>

[오답률 4위(27%) 예측] : 독서-사회 19번 문항 (구체적인 것은 지문 분석 때!)

[지문의 견해와 <보기>의 견해 비교 분석]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K 보험사의 자동차 책임보험 약관에는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여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라는 면책조항이 있다. 법원은 무면허 운전이 이뤄지는 상황은 보험계약자의 자동차 관리가 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절취 운전과 같이 보험계약자의 자동차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조항이 타당한 이유 없이 보험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조항을 무효로 하지 않고, 약관규제법의 다른 조항들을 검토하여 무면허 운전이 보험계약자의 자동차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축소해석하였다.

- ① 법원은 K 보험사의 면책조항이 무효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약관규제법을 참고하였겠군.
- ② 법원의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은 약관의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군.
- ③ 법원은 K 보험사의 면책조항의 내용을 분리할 수 있으므로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겠군.
- ④ 법원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보험사가 그것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보겠군.
- ⑤ 법원은 보험계약자의 자동차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겠군.

[정답 : ⑤]

[Killer-Point]

<보기>의 사례를 지문의 어떤 경우와 연결시킬 것인지부터가 시작이다.
 <보기>의 상황을 보면 법원이 보험사의 약관 조항 중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상황이다.
 그런데 법원은 이 조항을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해석’한다. 이 축소의 양상을 잘 파악해야 한다.

보험사 면책 범위

[기준] 무면허 운전인 경우 ⇨ [축소] 무면허 운전 중, ‘자동차 관리가 가능한 경우’

위의 축소는 면책조항의 적용 범위가 축소된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에는 면책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적용 범위가 축소되면서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 경우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정답 선지에서 다루는 상황이다.

<보기>에 따르면 조항이 유효인 부분은 ‘무면허 운전이 보험계약자의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보험계약자의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것은 무효한 내용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보험계약자의 자동차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유사 평가원 기출] - 2019학년도 6월 모평

사무실의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세입자와 사무실을 빌려 준 건물주 중 누가 고쳐야 할까? 이 경우, 민법전의 법조문에 의하면 임대인인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사무실을 빌릴 때,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가,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사법(私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 관계 등에 적용 되는 법으로서 이 법의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이처럼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임의법규'라고 한다.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 법규이므로,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위에서 본 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우선,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단속 법규'라고 한다. 공인 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직접 파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 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 중개사와 고객이 체결한 매매 계약의 경우 공인 중개사에게 벌금은 부과되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이 경우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인 급부(給付)를 할 의무가 인정되어, 공인 중개사는 매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고객은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아 급부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강행 법규'라고 한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이 이익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의 의료 기관 동업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강행 법규이다. 따라서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 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다만 계약에 따라 이미 동업 자금을 건넸다면 이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강행 법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급부의 내용이 위조지폐 제작처럼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넘겨준 이익을 돌려받을 권리도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 안보, 사회 질서, 공공복리 등의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이 경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국가가 계약 당사자 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25. 밑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농지를 빌리려는 A와 농지 주인인 B는 농지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에 합의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A는 B에게 농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1년간 농지를 사용하였다. 농지법을 위반한 이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법률을 위반하여 농지를 빌려 준 사람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둘째, 이 사건의 농지 임대차 계약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셋째, 농지를 빌려 준 사람은 받은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넷째, 농지를 빌린 사람은 농지를 빌려 써서 얻은 이익을 농지를 빌려 준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

- ① A와 B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법(私法)의 적용을 받지 않겠군.
- ②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A와 B가 맺은 농지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겠군.
- ③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 계약의 내용을 규제하는 법률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을 무효로 판결한 것이겠군.
- ④ A가 농지를 빌려 써서 얻은 이익을 B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군.
- ⑤ B가 A에게서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사용료가 부당 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군.

[정답 : ③]

[오답률 3위(약 35%) 예측] : 독서-과학 41번 문항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41.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밑줄을 참고할 때, 기사의 ㉠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문

○○○○년 ○○월 ○○일

㉠저용량의 아스피린 복용이 심장 마비나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하루에 100mg 가량의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COS-2보다 COS-1의 작용을 상대적으로 더 억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처방이 뇌혈관의 출혈로 야기되는 뇌출혈 같은 출혈성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더 높인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도 있어, 그 효능에 대해 의학자들도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다. (단, 진통 목적으로 복용하는 아스피린의 적정량은 하루에 500mg이다.)

[Killer-Point]

- ① 심장의 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양을 줄이는 효과가 있겠군.
- ② 일회성이려면 위장에서 새로운 COS-1이 발현될 때까지 위 점막을 약하게 하겠군.
- ③ 하루에 500mg 가량의 아스피린을 복용한 것에 비해 혈관이 확장되는 것을 더 어렵게 하겠군.
- ④ 하루에 500mg 가량의 아스피린을 복용한 것에 비해 조직 손상 시 발생하는 염증 반응을 줄이는 효과는 더 낮겠군.
- ⑤ 뇌혈관에서 혈전 생성에 관여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을 촉매하는 COS-1을 억제해 뇌출혈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겠군.

[정답 : ③]

용량에 따른 약효의 차이와, COS-1, COS-2의 억제 정도 차이를 헷갈리면 안 된다. 아스피린 100mg을 복용했을 때 COS-1과 COS-2가 억제되는 정도가 있을 것이고, 500mg을 복용했을 때 COS-1과 COS-2가 억제되는 정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100mg을 복용했을 때와 500mg을 복용했을 때 COS-1, 2가 억제되는 정도는 다를 것이다. 그럼 100mg을 복용했을 때와 500mg을 복용했을 때, 어떤 경우가 더 억제되는 정도가 강할까? 당연히 COS-1이든 COS-2이든, 아스피린 500mg을 복용했을 때 억제되는 정도가 강할 것이다. 다만 100mg을 복용했을 때 상대적으로 COS-1이 억제되는 정도가 COS-2가 억제되는 정도에

비해 더 강할 뿐이다. 이걸 어떤 근거가 필요한 사고가 아니다. 똑같은 약을 한 알 먹었을 때와 다섯 알 먹었을 때 후자가 약효가 더 강할 것임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정도 상식 판단은 충분히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혈관 확장에 대한 것을 보자. 지문에서 COS-2는 혈관 확장에 관여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촉매한다고 하였다. 이는 다시 말해 COS-2가 억제되면 혈관 확장도 억제된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아스피린 100mg을 복용했을 때보다 500mg을 복용했을 때 혈관 확장이 더 억제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아스피린 500mg을 복용했을 때 혈관이 확장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유사한 평가원 사례] - 2020학년도 수능

신체의 세포, 조직, 장기가 손상되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이식을 실시한다. 이때 이식으로 옮겨 붙이는 세포, 조직, 장기를 이식편이라 한다. 자신이나 일란성 쌍둥이의 이식편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이식편으로 '동종 이식'을 실시한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닌 물질이 체내로 유입될 경우 면역 반응을 일으키므로,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이식편에 대해 항상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면역적 거부 반응은 면역 세포가 표면에 발현하는 주조직적합 복합체(MHC) 분자의 차이에 의해 유발된다. 개체마다 MHC에 차이가 있는데 서로 간의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MHC에 차이가 커져 거부 반응이 강해진다. 이를 막기 위해 면역 억제제를 사용 하는데, 이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여 질병 감염의 위험성을 높인다.

이식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식이 가능한 동종 이식편의 수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우선 인공 심장과 같은 '전자 기기 인공 장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는 장기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대체 하는 데 사용되며, 추가 전력 공급 및 정기적 부품 교체 등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고, 아직 인간의 장기를 완전히 대체할 만큼 정교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다음으로는 사람의 조직 및 장기와 유사한 다른 동물의 이식편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이종 이식'이 있다. 그런데 이종 이식은 동종 이식보다 거부 반응이 훨씬 심하게 일어난다. 특히 사람이 가진 자연항체는 다른 종의 세포에서 발현되는 항원에 반응하는데, 이로 인해 이종 이식편에 대해서 초급성 거부 반응 및 급성 혈관성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한 형질 전환 미니돼지에서 얻은 이식편을 이식하는 실험이 성공한 바 있다. 미니돼지는 장기의 크기가 사람의 것과 유사하고 번식력이 높아 단시간에 많은 개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를 이용한 이종 이식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종 이식의 또 다른 문제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이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생명체의 DNA의 일부분으로, 레트로 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부위들이다. 이는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지지 않으며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 존재한다.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 담고 있고 역전사 효소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로서, 특정한 종류의 세포를 감염시킨다. 유전 정보가 담긴 DNA로부터 RNA가 생성되는 전사 과정만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레트로바이러스는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들어간 후 역전사 과정을 통해 자신의 RNA를 DNA로 바꾸고 그 세포의 DNA에 끼어들어 감염시킨다. 이후에는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를 숙주로 삼아 숙주 세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제, 증식하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숙주 세포를 파괴한다.

그런데 정자, 난자와 같은 생식 세포가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살아남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세포로부터 유래된 자손의 모든 세포가 갖게 된 것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이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세대가 지나면서 돌연변이로 인해 염기 서열의 변화가 일어나며 해당 세포 안에서는 바이러스로 활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떼어 내어 다른 종의 세포 속에 주입하면 이는 레트로바이러스로

변환되어 그 세포를 감염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미니돼지의 DNA에 포함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 중에 있다.

그동안의 대체 기술과 관련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이상적인 이식편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28. <보기>는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윗글을 참고할 때, 기사의 ㉔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최근에 줄기 세포 연구와 3D 프린팅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줄기 세포는 인체의 모든 세포나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혜자 자신의 줄기 세포만을 이용하여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제작한 ㉔세포 기반 인공 이식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미니 폐, 미니 심장 등의 개발 성공 사례가 보고되었다.

- ① 전자 기기 인공 장기와 달리 전기 공급 없이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겠군.
- ② 동종 이식편과 달리 이식 후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군.
- ③ 동종 이식편과 달리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할 필요가 없겠군.
- ④ 이종 이식편과 달리 유전자를 조작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겠군.
- ⑤ 이종 이식편과 달리 자연항체에 의한 초급성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군.

[정답 : ③]

[오답률 2위(약 47%) 예측] : 독서-인문 30번 문항

[세부 추론]	
[Killer-Point]	<p>30. (나)의 '양상 의미론'을 바탕으로 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① 소크라테스는 모든 가능세계에서 인간이다. ② 소크라테스가 추남인 가능세계가 반드시 있다. ③ 소크라테스는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인간이지만 철학자가 아니다. ④ 소크라테스가 정치인이며 추남인 가능세계가 적어도 하나는 있다. ⑤ 소크라테스가 인간이며 정치인인 가능세계가 적어도 하나는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정답 : ④]</p>
	<p>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를 잘 포착한 문제이다. 절대 선지 표현만 가지고 선지를 판단하면 안 된다. 선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p> <p>(나)의 2문단에 따라 본질적 속성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하고 우연적 속성은 최소한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4번 선지를 넘긴 학생들이 있었을 것이다.</p> <p>그런데 정치인이라거나 추남이라는 속성은 모두 우연적 속성이므로, 각각의 속성은 최소한 하나의 가능세계에서만 성립하면 된다. 그러니까 100개의 가능세계 중에 1번 가능세계에서만 정치인이라는 속성이 성립하고, 100번 가능세계에서만 추남이라는 속성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p> <p>다시 말해 어떤 가능세계에서 두 속성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은 있지만, 두 속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가능세계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p>
[유사한 평가원 사례] - 2019학년도 수능	
<p>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임의의 명제를 P라고 하면 P와 ~P는 모순 관계이다.(기호 '~'은 부정을 나타낸다.)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무모순율이라고 한다. 그런데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다보탑의 소재지는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P와 ~P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고 표현한다.</p> <p>'가능세계'의 개념은 일상 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필연성과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P는 가능하다'는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며, 'P는 필연적이다'는 P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다.</p> <p>"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는 않은 명제는 우리의 현실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 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p> <p>가능세계를 통한 담론은 우리의 일상적인 몇몇 표현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 상황을 생각해 보자.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으며, 내가 놓친 기차는 제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는</p> <p>"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이면 B이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 가능세계 중 어떤 세계에서 나는 여</p>	

전히 지각을 한다. 가령 내가 탄 그 기차가 고장으로 선로에 멈춰 운행이 오랫동안 지연된 세계가 그런 예이다. 하지만 내가 기차를 탄 세계들 중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우리의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다. 일반적으로, A가 참인 가능세계들 중에 비교할 때, B도 참인 가능세계가 B가 거짓인 가능세계보다 현실세계와 더 유사하다면, 현실세계의 나는 A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만약 A라면 ~B가 아닌 B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능세계는 다음의 네 가지 성질을 갖는다. 첫째는 가능세계의 일관성이다. 가능세계는 명칭 그대로 가능한 세계이므로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없다. 둘째는 가능세계의 포괄성이다. 이것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능세계의 완결성이다.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 ~P이다."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즉 P와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다. 넷째는 가능세계의 독립성이다. 한 가능세계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야만 하며, 연속된 시간과 공간에 포함된 존재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만 속한다. 한 가능세계 W1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가능세계 W2의 시간과 공간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W1과 W2는 서로 시간과 공간이 전혀 다른 세계이다.

가능세계의 개념은 철학에서 갖가지 흥미로운 질문과 통찰을 이끌어 내며, 그에 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가능세계를 활용한 논의는 오늘날 인지 과학, 언어학, 공학 등의 분야로 그 응용의 폭을 넓히고 있다.

40.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
- ②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가 성립하는 가능세계 중에는 ㉠이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다.
- ③ ㉡과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 ④ 만약 ㉡이 거짓이라면 어떤 가능세계에서도 다보탑이 개성에 있지 않다.
- ⑤ ㉠과 ㉡은 현실세계에서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다.

[정답 : ②]

[오답률 1위(약 50%) 예측] : 독서-인문 29번 문항

[지문의 견해와 <보기>의 견해 비교 분석]	
[Killer-Point]	<p>29. (가), (나)에 나타난 철학자들과 <보기>의 '과인'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보기 ></p> <p>과인에 따르면 어떤 대상이 필연적으로 가지는 속성은 없다. 필연적인 관계는 오직 관념적 세계에 속하는 개념과 개념 사이에만 성립하는 것이지, 어떤 객관적 대상과 그 대상의 속성 사이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총각은 미혼이다.'라는 문장은 필연적으로 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 세계에 미혼이라는 속성을 필연적으로 가지는 총각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것은 아니다. 총각으로 불리는 어떤 사람은 단지 어떤 시기에 우연히 미혼일 뿐이고 언제든 결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연성은 총각 개념과 미혼 개념 사이에만 성립한다. 반면 총각이 어떤 객관적인 대상(인물)을 지칭할 때 그 대상이 미혼이라는 속성을 필연적으로 가지는 것은 아니다.</p> </div> <p>① 과인은 크립키가 관념적 세계에만 성립하는 관계를 현실 세계에도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했다고 비판하겠군.</p> <p>② 과인은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본질적 속성과 우연적 속성의 구분은 관념적인 차원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겠군.</p> <p>③ 과인은 자연 과학의 목적이 어떤 대상의 본질적 속성을 발견하는 것에 있다는 크립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겠군.</p> <p>④ 과인은 초기의 현대 논리학자들과 달리 필연성 명제가 현실 세계의 객관적 사태에 적합한지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군.</p> <p>⑤ 기원 본질주의를 주장하는 이론가들은 과인과 달리 소크라테스가 그 부모의 생식 세포로부터 유래한 것은 필연성을 갖는다고 생각하겠군.</p> <p style="text-align: right;">[정답 : ④]</p> <p><보기>에 제시된 학자의 견해와 지문의 견해를 비교 분석하는 문제인데, <보기>에 제시된 학자가 익숙하다. 과인이다. 과인에 대한 지문(2017학년도 수능)을 안 본 학생들은 없을 것이므로, 배경 지식 덕분에 조금 더 쉽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마냥 쉬운 문제는 아니다. 비교 기준이 꽤 까다롭다.</p> <p>(나)를 먼저 보자. 기초 논리 체계에는 필연성 같은 양상 개념을 포함한 명제를 다루는 방법이 부재했다.</p> <p>그래서 초기의 현대 논리학자들은 필연성 명제는 엄격한 학문적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1문단의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들에게 있어 '학문적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현실 세계의 객관적 사태에 적합한지 여부'를 따질 수 있다는 것과 같다.</p> <p>즉 현대 논리학자들은 '필연성 명제'에 대해 '현실 세계의 객관적 사태에 적합한지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여기서 4번 선지는 틀렸다고 판단할 수 있다.</p> <p>그럼 과인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과인은 애초에 어떤 객관적 대상이 필연적으로 가지는 속성은 없다고 생각했다. 즉 어떤 대상에 대한 필연성 명제는 애초에 없다고 본 것이다. 당연히 필연성 명제가 현실 세계의 객관적 사태에 적합한지 여부 또한 따질 이유가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필연성 명제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p>

[유사한 평가원 사례] - 2017학년도 수능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그중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콰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는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콰인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그러나 콰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따라서 콰인은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콰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그러나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나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와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20. 밑글의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이 경험과 충돌하더라도 그 충돌 때문에 가설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 ② 논리학 지식이나 수학적 지식이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위치한다고 해서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 ③ 전체 지식은 어떤 결정적인 반박일지라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 대상을 주변부 지식으로 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 ④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주변부 지식도 수정해야 하겠지만, 주변부 지식을 수정한다고 해서 중심부 지식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해도 중심부 지식 중에는 주변부 지식들과 종류가 다른 지식이 존재한다.

[정답 : ⑤]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① 문법

[참고] 문법의 경우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고 나서 자신이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문항을 풀기 위해 알았어야 하는 개념들을 스스로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중세국어의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
의미	가부(可否) 또는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 (의문사 없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 (의문사 있음)
실현 방법	① ‘-야’ 계열의 어미 : ‘-녀’, ‘-(잇)가’ ② 의문 보조사 : ‘가’	① ‘-오’ 계열의 어미 : ‘-뇨’, ‘-(잇)고’ ② 의문 보조사 : ‘고’
예	어미 : 공덕(功德)이 하녀 저그녀(공덕이 많으나 적으나) 보조사 : 이 썩리 너희 종가(이 딸이 너희 종이나)	어미 : 이제 어디 잇뇨(이제 어디 있느냐) 보조사 : 이 엇던 광명(光明)고(이 어떤 광명이나)

[참고] 주어가 2인칭인 의문문

- 중세 국어에서 주어가 2인칭인 의문문은 1인칭이나 3인칭의 경우와 달리 의문형 어미 ‘-나다’ 또는 ‘-라따(-라다)’가 쓰여 형태적으로 구별되었다.

예) 네 엇데 안다 (네가 어찌 아느냐?) / 네 내 볼 드를따 (너는 내 말을 들었느냐?)

와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	입과 눈과
과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체언 뒤	나모와, 들와

[선택지 해설]

12. ㉞

정답해설 답은 ㉞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뒷글에서 2문단의 직접 의문문에 관한 설명을 꼼꼼히 읽어야 해. 또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장의 주체가 몇 인칭인지, 문장이 판정 의문문인지 설명 의문문인지를 봐야 해. 판정 의문문은 문장에 의문사가 없고, 답이 ‘예/아니오’로 나오는 문장이며 설명 의문문은 문장에 의문사가 있고, 해당 의문사에 대한 설명이 답으로 나오는 문장이야. 이러한 판정 의문문에는 ‘-녀’같은 ‘ㅏ’ 계열의 의문형 어미가, 설명 의문문에는 ‘-뇨’같은 ‘ㅓ’ 계열의 의문형 어미가 사용 돼. 참고로, 만약에 주어가 2인칭이라면 판정/설명 의문문 상관없이 의문형 어미 ‘-나다’가 사용 돼. 셋째, 높임도 고려해야 해. ‘ᄃ야씨체’에서는 판정 의문문에 ‘ㅏ’형 의문형 어미 ‘-닛가가’, 설명 의문문에 ‘ㅓ’형 의문형 어미 ‘-닛고’를 사용했고, ‘ᄃ쇼씨체’에서는 판정 의문문에 ‘ㅏ’형 의문형 어미 ‘-니잇가가’, 설명 의문문에 ‘ㅓ’형 의문형 어미 ‘-니잇고’를 사용했어. ‘ᄃ야씨체’와 ‘ᄃ쇼씨체’가 보이면 인칭은 고려하지 않아도 돼. 이 모든 걸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먼저 (가)의 ‘이 智慧 업슨 比丘 | 어드러셔 오노’는 현대어로 ‘이 지혜 없는 비구가 어디에서 왔느냐?’야. 이 문장의 주체는 ‘지혜 없는 비구’이며 이것은 3인칭이야. 그리고 이 문장에는 의문사 ‘어디’가 있으므로 설명의문문에 해당해. 그러므로 ‘오노’에서 보듯이 ‘ㅓ형’ 의문형 어미 ‘-뇨’가 사용되었어. 그럼 ㉞에 들어가야지. 다음으로 (나)의 ‘어엿비 아니 너기샤 내 바블 아스시느니잇가’는 현대어로 ‘가엿게 여기지 않으셔서 내 밥을 빼앗으십니까?’야. 중세의 이 문장에서 바로 ‘-니잇가가’ 보여. 이는 ‘ᄃ쇼씨체’의 판정 의문문에

해당해. 그러므로 ㉠에 해당해. (다)의 ‘그뉘 아버니미 잇느닛가’는 현대어로 ‘그대 아버님이 계시오?’야. 중세의 이 문장에서 ‘닛가’가 보여. 이는 ‘ㅎ아씨체’의 판정 의문문에 해당해. 그러므로 ㉡에 해당하지. (라)의 ‘므스므라 오시니잇고’는 현대어로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야. 중세의 이 문장에서 ‘니잇고’가 보여. 이는 ‘ㅎ쇼씨체’의 설명 의문문에 해당해. ㉢에 해당해. 마지막으로 (마)의 ‘그 어미 무로디 네 엇데 안다’는 현대어로 ‘그 어미가 묻되, 네가 어찌 아느냐?’야. 이때, ‘네가 어찌 아느냐?’의 주어는 ‘네’로 2인칭 주어이며, 이에 ‘안다’에서처럼 2인칭 의문형 어미 ‘-나다’가 사용되었어. ㉣에 해당하지.

[13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1.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에 따른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서 벗어난 합성어

(1) 통사적 합성어

종류	예시
① 체언 + 체언	눈발, 밤낮, 눈물
② 관형사 + 체언	새해, 옛날, 첫사랑
③ 용언의 관형사형 + 체언	어린이, 작은집, 뜯소문
④ 용언의 연결형 + 용언	같이입다, 알아듣다, 들어가다, 파고들다
⑤ 체언 + 용언 : 우리말에서 조사 생략은 일반적이므로, 일반적인 단어 배열에 해당한다.	철들다, 빛나다, 본받다, 힘쓰다

(2) 비통사적 합성어

종류	예시
① 용언의 어간 + 체언	뉘밥, 접칼
② 용언의 어간 + 용언	검뵤다, 뉘푸르다, 굳세다
③ 부사 + 체언	산들바람, 오목거울
④ 한자어 결합 방식	등산, 독서

2. 품사별 합성어

(1) 합성 체언

- ① 두 어근이 모두 체언인 합성 명사
 - 예) 앞뒤, 눈발, 마소, 돌다리, 똥오줌, 길바닥, 눈물, 춘추, 연세
- ② 관형어와 명사가 연결된 합성 명사
 - 예) 새해, 새마을, 큰형, 어린이, 작은집, 날짐승, 열쇠
- ③ 합성 대명사
 - 예) 이것, 그것, 여러분, 누구누구
- ④ 합성 수사
 - 예) 예닐곱

(2) 합성 동사

- ① 두 어근이 모두 동사인 합성 동사
 예 들고나다, 파고들다, 타고나다, 갈아입다, 들어가다, 알아듣다, 돌아가다
- ② 앞 어근은 형용사, 뒤 어근은 동사인 합성 동사
 예 기뻐하다, 좋아하다
- ③ 명사와 동사가 연결된 합성 동사
 예 힘들다, 본받다, 힘쓰다, 등지다

(3) 합성 형용사

- ① 형용사끼리 합성된 합성 형용사
 예 희디희다, 머나멀다, 짜디짜다, 높푸르다, 검붉다
- ② 동사끼리 합성된 합성 형용사
 예 깎아지르다
- ③ 명사와 형용사가 합성된 합성 형용사
 예 남부끄럽다, 손쉽다, 값싸다, 배부르다
- ④ 부사와 형용사가 결합된 합성 형용사
 예 다시없다
- ⑤ 용언의 관형사형 + 명사 + 형용사의 구성인 합성 형용사
 예 쓸데없다, 보잘것없다

(4) 합성 관형사, 합성 부사, 합성 감탄사

- ① 합성 관형사
 예 한두, 스무남은
- ② 합성 부사
 예 한바탕, 어느덧, 어느새, 밤낮, 이른바, 오다가다, 곧잘, 잘못, 군데군데, 하나하나, 두고두고, 더듬더듬, 오래오래
- ③ 합성 감탄사
 예 아이참, 얼씨구절씨구, 웬걸

[선택지 해설]**13. ㉔**

정답해설 답은 ㉔야. ㉓, ㉕, ㉖, ㉗가 통사적 합성어인지, 합성 관형사인지, 뒤에 오는 어근과 품사가 다른 합성어인지 파악해보자. 먼저, ㉓의 ‘들어간’을 분석해보자. 원형은 ‘들어가다’야. 이는 어근이자 어간인 ‘들’과 ‘가’를 연결어미 ‘-어-’가 연결하면서 만들어진 통사적 합성어야. 그리고 ‘들어가다’는 ‘어떤 단체의 구성원이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에 해당해. 또한, 뒤에 오는 어근 ‘가’의 품사는 동사이며, ‘들어가다’의 품사도 동사이기에 뒤에 오는 어근의 품사와 합성어의 품사는 같아.

㉕의 ‘힘든’을 분석해보자. 원형은 ‘힘들다’야. 이는 ‘힘이 들다’에서 주격 조사 ‘이’가 생략되고, 어근 ‘힘’과 ‘들’이 합쳐진 통사적 합성어야. 우리 국어에서 조사가 생략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거든. 그리고 ‘힘들다’는 ‘힘이 쓰이는 면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에 해당해. 뒤에 오는 어근 ‘들’의 품사는 동사이지만, ‘힘들다’의 품사는 형용사로 뒤에 오는 어근의 품사와 합성어의 품사는 달라.

㉖의 ‘높푸른’을 분석해보자. 원형은 ‘높푸르다’야. 이는 어근이자 어간인 ‘높’과 ‘푸르’가 연결되어 만들어졌어. 하지만, ‘높’과 ‘푸르’ 사이에 연결 어미가 없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야. 우리나라에서 단어 형성에 필요한 어미가 없는 경우에는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

해. 그리고 ‘높푸르다’는 ‘높고 푸르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에 해당해. 또한, 뒤에 오는 어근 ‘푸르-’의 품사는 형용사이며, ‘높푸르다’의 품사도 형용사이기에 뒤에 오는 어근의 품사와 합성어의 품사는 같아.

㉔의 ‘온갖’을 분석해보자. ‘온갖’은 관형사 ‘온’과 명사 ‘가지’가 합쳐졌어. 관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우리 문법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이는 통사적 합성어야. 그리고 ‘온갖’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라는 의미를 가지는 관형사에 해당해. 또한, 뒤에 오는 어근 ‘가지’의 품사는 명사인데 ‘온갖’의 품사는 관형사로 둘의 품사는 달라. 그러므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㉔뿐이야.

[14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음운의 변동]

음운 변동의 유형

- ① 교체 :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 (A+B → A+C) 음운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0)
- ② 탈락 :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음운 변동 (A+B → A) 음운 개수가 하나 준다.(-1)
- ③ 첨가 :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음운 변동 (A+B → A+'C'+B) 음운 개수가 하나 늘다.(+1)
- ④ 축약 : 두 음운이 하나로 합쳐지는 음운 변동 (A+B → C) 음운 개수가 하나 준다.(-1)

1. 음절 끝소리 규칙 : 받침소리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이외의 자음이 이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바뀌는 현상

- 어말 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 앞 : 음절 끝소리가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발음.
-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 : 음절 끝소리가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바뀌고 연음.

받침	대표음	예시
ㄱ, ㅋ, ㆁ	ㄱ	국[꺠], 밖[꺠], 부엌[부꺠]
ㄴ	ㄴ	소원[소원]
ㄷ, ㅌ, ㅅ, ㅆ, ㅈ, ㅊ, ㅎ	ㄷ	날, 낱, 낫, 낯, 낯, 낯, 낯 → [낯]
ㄹ	ㄹ	말[말], 발[발]
ㅁ	ㅁ	감[감]
ㅂ, ㅃ	ㅂ	입, 앞 → [입]
ㅇ	ㅇ	강[강]

[더 알아보기] 연음할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실현 양상

- ①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예) 높 앞[느뺑], 발 아래[바다래], 부엌 안[부어간] 꽃 위[꼬뒤]
- ②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앞말의 자음을 뒤 음절 첫소리로 그대로 옮겨 발음한다.
 - 예) 곁에[거테], 꽃을[꼬츄]
- ③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올 경우에는 겹받침 중 뒤의 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단, 겹받침이 ‘ㄱ, ㄴ, ㅂ’인 경우, ‘ㄱ’을 연음하되 된소리[ㄱ]으로 발음한다.
 - 예) 닭을[달꺠], 삼아[살마], 값을[값꺠], 외꺠으로[외꺠쓰로]

2. 유음화 :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바뀌는 현상

비음	환경	결과	예시
ㄴ	ㄹ 앞이나 뒤	[ㄹ]	신라 → [실라], 물난리 → [물랄리], 뚫는 → [뚫는 → 뚫른]

3. 비음화

① 비음(동)화 :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 앞에서 비음 ‘ㅇ, ㄴ, ㄹ’으로 바뀌는 현상

파열음	환경(비음)	결과	예시
ㄱ	ㄴ, ㄹ 앞	[ㅇ]	국물[궁물], 낚는다[낙는다→낭는다], 부역문[부역문→부영문]
ㄷ	ㄴ, ㄹ 앞	[ㄴ]	닫는[단는], 걸모양[견모양→건모양], 쫓는[쫓는→쫓는]
ㅂ	ㄴ, ㄹ 앞	[ㅇ]	밥물[방물], 앞니[압니→암니], 값만[갑만→감만]

② ‘ㄹ’의 비음화 : ‘ㄹ’이 다른 자음 뒤에서 ‘ㄴ’으로 바뀜(①과 구분할 필요는 없다.)

유음	환경	결과	예시
ㄹ	ㄹ 이외의 자음 뒤	[ㄴ]	담력[담녁], 종로[종노], 대통령[대:통녕], 협력[협녁→협녁], 막론[막논→망논]

[참고] 결국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명확히 기억하면 좋다.

유음화, 비음화는 ① 교체 / ② 동화 / ③ 조음 방법이 바뀌는 것이다.

-----교체

4. ‘ㅎ’ 탈락 : ‘ㅎ’으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사와 결합할 때 ‘ㅎ’이 탈락하는 현상

받침	환경	결과	예시
ㅎ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사 앞	[∅]	좋 + -아서 → [조:아서], 앉 + -은 → [아는], 꿔 + -이 + -고 → [끄리고] [참고] 어간의 끝 자음 ‘ㄷ’이나 ‘ㄹ’의 ‘ㅎ’도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사 앞에서 탈락한다.

[참고1] 표준 발음법 : 받침의 발음

제 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ㅎ(ᄃᆞ, ᄃᆞᆞ)’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낱은[나은] 놓아[노아] 쌓이다[싸이다] 많아[마:나] 앓은[아는] 닳아[다라] 싫어도[시러도]

[참고2] ‘안고[안코]’, ‘안는[아는]’, ‘안는[안는]’

‘안고[안코]’의 경우에는 어간 ‘안-’의 ㅎ이 자음을 만나 축약되어 [안코]로 발음된다.

그리고 ‘안은[아는]’과 ‘안는[안는]’의 경우 역시 ㅎ이 탈락하게 된다. 그러나 이 두 경우는 결과적으로 탈락이지만 그 내용은 다르다. ‘안은[아는]’의 경우 받침 ‘ㅎ(ᄃᆞ)’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왔으므로 ‘ㅎ’ 탈락 현상이지만, ‘안는[안는]’의 경우는 뒤에 모음이 아닌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온 것이다. 즉 ‘ᄃᆞ’는 겹받침이고 그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으므로 음절의 끝에서 겹받침이 자음군 단순화를 겪게 된다. 그래서 ‘안은[아는]’과 ‘안는[안는]’은 모두 탈락에 해당하지만, 정확히 따져보면 ‘안은[아는]’은 ‘ㅎ’ 탈락이고, ‘안는[안는]’은 자음군 단순화에 해당하게 된다.

안은 → [아는] 안는 → [안는]
 ‘ㅎ’ 탈락 자음군 단순화

5. 자음군 단순화 :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겹받침)이 올 때, 이 중에서 한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

· 우리말에서 음절 말 위치에 놓이는 자음은 하나만 올 수 있기 때문에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한다. 그러나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와 결합될 경우 두 자음이 모두 발음된다. 예) 앉으면 → [안즈면]

[주의] 쌍자음 ‘ㄱ, ㅍ’은 겹받침이 아니므로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지 않는다.(음절 끝소리 규칙이다.)

겹받침	환경	결과	예시
체언의 겹받침 ㄱ, ㄲ, ㅃ, ㄴ, ㄷ	어말 또는 자음 앞	[ㄱ, ㄲ, ㅃ, ㄴ, ㄷ]	넋 → [넉], 여덟 → [여덜], 값 → [갹], 닭 → [दै], 삶 → [삼]
어간의 겹받침 ㄴ, ㄹ, ㄷ, ㄷ, ㅃ, ㄷ, ㄷ	자음 앞	[ㄴ, ㄹ, ㄷ, ㄷ, ㅃ, ㄷ, ㄷ]	앉고 → [안꼬], 많네 → [만:네], 할고 → [할꼬], 앓는 → [알른], 없고 → [업:꼬], 굶다 → [굸:따], 읊다 → [읍:따] 단, 'ㄹ, ㄷ'의 'ㅎ'은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축약되기도 한다. 예) 많다 → [만타]

[참고] 특이한 겹받침 발음(알아두자)

- 어간의 겹받침 ㄹ → [ㄹ] / ㄱ 앞 예) 읽고 → [일꼬], 맑게 → [말께]
 ㄹ → [ㄱ] / ㄱ 이외의 자음 앞 예) 읽다 → [익따], 맑다 → [막따]
- 어간의 겹받침 ㄷ → [ㄹ] / 자음 앞 예) 넓고 → [널꼬], 짧게 → [잘께]
 ㄷ → [ㅂ] (뵈-/ 자음 앞, 넓죽하다, 넓둥글다)
 예) 뵈고 → [뵈꼬], 넓죽하다 → [넙쭈카다], 넓둥글다 → [넙똥글다]
⇒ ‘ㄷ’은 주로 ‘ㄹ’이 남으나, 자음 앞에 나타난 ‘뵈-’과, ‘넙죽하다, 넙둥글다’의 ‘ㄷ’은 ‘ㅂ’이 남는다.

탈락

[선택지 해설]

14. ㉟

①	을는	을는 → 자음군단순화	을는 → 음절의 끝소리규칙	읍는 → 비음화	[음는]
②	공로	공로 → 비음화	[공노]		
③	낚는	낚는 → 음절의 끝소리규칙	낙는 → 비음화	[낭는]	

정답해설 ㉟야. 먼저, ㉟의 ‘을는’에서는 종성 겹받침의 한 자음이 탈락하는 자음군단순화가 일어나. 그래서 ‘ㄹ’이 탈락해서 ‘을는’이 돼. 그 후, 교체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음는’이 된 후, 앞 음절 종성의 파열음 ‘ㅂ’과 뒤 음절 초성의 비음 ‘ㄴ’이 만나서 파열음 ‘ㅂ’이 비음 ‘ㅁ’으로 조음 방법이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음는]이 돼. 다음으로 ㉟의 ‘공로’에서는 앞 음절 종성의 비음 ‘ㅇ’과 뒤 음절 초성의 유음 ‘ㄹ’이 만나 뒤 음절의 유음 ‘ㄹ’이 비음 ‘ㄴ’으로 교체되는, 조음 방법이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공노]가 돼. 마지막으로, ㉟의 ‘낚는’에서는 우선 교체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서 ‘낙는’이 되고, 그 후에 앞 음절 종성의 파열음 ‘ㄱ’과 뒤 음절 초성의 비음 ‘ㄴ’이 만나 파열음 ‘ㄱ’이 비음 ‘ㅇ’으로 조음 방법이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서 최종적으로는 [낭는]이 돼. 정리하면, ㉟에서는 ‘파열음이자 입술소리’인 ‘ㅂ’이 인접한 ‘비음이자 윗잇몸소리’인 ‘ㄴ’을 만나 ‘비음이자 입술소리’인 ‘ㅁ’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즉, 파열음이 비음을 만나서 비음으로 바뀌는 조음 방법 동화가 일어났어. ㉟에서는 ‘유음이자 윗잇몸소리’인 ‘ㄹ’이 인접한 ‘비음이자 여린입천장소리’인 ‘ㅇ’을 만나 ‘비음이자 윗잇몸소리’인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즉, 유음이 비음을 만나서 비음으로 바뀌는 조음 방법 동화가 일어났어. ㉟에서는 ‘파열음이자 여린입천장소리’인 ‘ㄱ’이 인접한 ‘비음이자 윗잇몸소리’인 ‘ㄴ’을 만나 ‘비음이자 여린입천장소리’인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즉, 파열음이 비음을 만나서 비음으로 바뀌는 조음 방법 동화가 일어났어.

[오답풀이]

- ①을 살펴보자. ㉠에서는 앞 음절 종성의 파열음 ‘ㅂ’과 뒤 음절 초성의 비음 ‘ㄴ’이 만나서 파열음 ‘ㅂ’이 비음 ‘ㅁ’으로 조음 방법이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이때, 파열음 ‘ㅂ’이 비음 ‘ㄴ’으로 인해 비음 ‘ㅁ’으로 바뀌지. ㉡에서는 앞 음절 종성의 비음 ‘ㅇ’과 뒤 음절 초성의 유음 ‘ㄹ’이 만나 뒤 음절의 유음 ‘ㄹ’이 비음 ‘ㄴ’으로 교체되는, 조음 방법이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이때, 유음 ‘ㄹ’이 비음 ‘ㅇ’으로 인해 비음 ‘ㄴ’으로 바뀌지. 즉, ㉠은 ‘ㄴ’으로 인해, ㉡은 ‘ㅇ’으로 인해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어.
- ②를 살펴보자. 먼저 ㉠의 ‘옳는’에서는 종성의 겹받침의 한 자음이 탈락하는 자음군단순화가 일어나. 이에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어. 하지만, ㉡에서는 교체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어.
- ③을 살펴보자. ㉢의 ‘공로’에서는 앞 음절 종성의 비음 ‘ㅇ’과 뒤 음절 초성의 유음 ‘ㄹ’이 만나 뒤 음절의 유음 ‘ㄹ’이 비음 ‘ㄴ’으로 교체되는, 조음 방법이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 즉 ㉢에서 교체된 음운은 ‘ㄹ’이야. ㉣의 ‘낙는’에서는 우선 교체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서 ‘낙는’이 되고, 그 후에 앞 음절 종성의 파열음 ‘ㄱ’과 뒤 음절 초성의 비음 ‘ㄴ’이 만나 파열음 ‘ㄱ’이 비음 ‘ㅇ’으로 조음 방법이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서 최종적으로는 [낭는]이 돼. 즉, ㉣에는 탈락된 음운이 없어.
- ④를 살펴보자. 먼저, ㉠의 ‘옳는’에서는 종성의 겹받침의 한 자음이 탈락하는 자음군단순화가 일어나. 그래서 ‘ㄹ’이 탈락해서 ‘옳는’이 돼. 그 후, 교체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옳는’이 된 후, 앞 음절 종성의 파열음 ‘ㅂ’과 뒤 음절 초성의 비음 ‘ㄴ’이 만나서 파열음 ‘ㅂ’이 비음 ‘ㅁ’으로 조음 방법이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옳는]이 돼. 총 3번의 음운변동이 일어나. 다음으로 ㉢의 ‘공로’에서는 앞 음절 종성의 비음 ‘ㅇ’과 뒤 음절 초성의 유음 ‘ㄹ’이 만나 뒤 음절의 유음 ‘ㄹ’이 비음 ‘ㄴ’으로 교체되는, 조음 방법이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서 [공노]가 돼. 총 1번의 음운변동이 일어나. 마지막으로, ㉣의 ‘낙는’에서는 우선 교체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서 ‘낙는’이 되고, 그 후에 앞 음절 종성의 파열음 ‘ㄱ’과 뒤 음절 초성의 비음 ‘ㄴ’이 만나 파열음 ‘ㄱ’이 비음 ‘ㅇ’으로 조음 방법이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서 최종적으로는 [낭는]이 돼. 총 2번의 음운변동이 일어나. 정리하면 ㉠에서는 3번, ㉢에서는 1번, ㉣에서는 2번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② 문학

[참고] 모의고사로 문제를 풀어 본 김에 EBS 연계 작품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리지 말고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EBS 연계를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출제 될 때마다 공부해두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현대시 [21~25번 지문]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히 그리고 언제나 많은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뿔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EBS 수능특강 연계 #수능완성(177p)

[작품 ‘한눈’에 보기]

[EBS 작품 풀이]								
<p>이 작품은 고향을 떠난 화자가 ‘흰 바람벽’에 비친 내면 풍경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어려운 현실을 운명적으로 수용하는 데서 나아가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흰 바람벽’은 내면 성찰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화자의 쓸쓸하고 외로운 내면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사색과 성찰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고, 앞으로의 삶의 자세를 다지게 하는 기능을 한다.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고결함을 잃지 않으려는 삶의 자세가 잘 드러난 작품이다.</p>								
<p>[기본개 읽기] 흰 바람벽</p> <p>흰 바람벽에서 ‘바람’의 의미는 ‘바람’의 의미뿐만 아니라 ‘벽’이란 뜻도 가지고 있었다 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보면 제목의 의미는 ‘벽벽’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반복은 어휘의 뜻을 또렷하게 하기 위한 의도로도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로는 ‘족발’ 따위가 있다.</p>								
<p>주제 피폐한 현실 속에서 느끼는 쓸쓸함과 외로움의 정서, 그리고 이에 굴하지 않으려는 삶의 의지</p>								
작품 한눈에 보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auto;"> 흰 바람벽 [성찰의 매개체] </div>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padding: 5px;">어머니</td></tr> <tr><td style="padding: 5px;">사랑하는 사람</td></tr> <tr><td style="padding: 5px;">글자들</td></tr> </table>	어머니	사랑하는 사람	글자들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0px; margin: auto;"> 자기 운명에 대한 긍정적 수용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극복 의지 </div>	
어머니								
사랑하는 사람								
글자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auto;"> 정서의 변화 </div>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쓸쓸함 [1-6행]</td> <td style="padding: 5px;">그리움 [7-16행]</td> <td style="padding: 5px;">순응과 체념 그리고 의지의 환기 [17-23행]</td> <td style="padding: 5px;">극복의지 [24-29행]</td> </tr> </table>	쓸쓸함 [1-6행]	그리움 [7-16행]	순응과 체념 그리고 의지의 환기 [17-23행]	극복의지 [24-29행]		
쓸쓸함 [1-6행]	그리움 [7-16행]	순응과 체념 그리고 의지의 환기 [17-23행]	극복의지 [24-29행]					

[<보기>를 통한 작품 이해]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 내 주된 특징을 파악하라.”

‘한수 모의고사’ <보기>
<p>이 시의 ‘흰 바람벽’은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성찰의 매개체이다. 화자의 의지와 관계 없이 떠오르는 생각이나 화자가 품어 왔던 인식 등이 ‘흰 바람벽’에 영상이나 자막의 형태로 투사된다. 화자는 마치 관객처럼 장면화된 자신의 내면을 바라봄으로써 위안을 얻는 한편, 고단했던 삶 속에서도 고결함을 잃지 않으려는 삶의 자세를 견지하게 되는 것이다.</p>

[EBS 연계 학습 '지문' -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 "EBS 연계가 분명히 '전범'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십오 축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 샤쯔**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tip] '십오 축 전등'은 아주 '희미한' 것으로 화려한 도시의 불빛과는 대조되는데, 이 십오 축 전등이 불빛을 내어 던지는 대상은 '다 낡은 무명 샤쯔'로 '때글은'(오래도록 땀과 때에 절은)이란 수식어는 화자의 지친 상태를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그래서 화자는 '어두운 그림자'를 쉬게 하고 싶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달디단 따끈한 감주'에선 화자의 쉬고 싶은 마음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 1~6행 : 흰 바람벽에 비친 쓸쓸하고 애처로운 삶의 단면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즈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조 얹어 대구국을 끓여 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EBS 확인하기] '늙은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

- ① '흰 바람벽'은 '늙은 어머니'의 공간이 아니라 화자의 공간으로 '순수함'을 환기한다기보다는 '쓸쓸함'을 환기하는 공간이고, '나즈막한 집'은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의 공간으로 '평온함'을 환기하고 있다.
- ② '가난한 늙은 어머니'와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 '늙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의 시적 상황을 가난함과 어여쁨으로 대위시켜 각각 '연민'과 '연정'을 환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늙은 어머니는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있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대구국을 끓여 놓고' 있는 모습으로 차가움과 따뜻함이라는 감각의 범주로 대위시켜 '늙은 어머니'의 '고달픔'과 '사랑하는 사람'의 '단란함'을 환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7~16행 : 흰 바람벽에 비친 그리운 사람들

그런데 또 이즈막하야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EBS 확인하기] 관념의 구체화

추상적 대상(사랑, 슬픔, 생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해매다, 차다 : 행위[시각])하여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 17~23행 : 흰 바람벽에 비친 내면 인식, 운명론적 체념과 고결한 삶의 의지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려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EBS 확인하기] 외적 확장 & 역설 & 인식전환 & 유사한 통사구조

- ① 화자는 현재 처해 있는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함, 사랑과 슬픔의 상황을 초생달, 바구지꽃, 짝새, 당나귀, 프랑시스 잼, 도연명, 라이넬 마리아 릴케의 상황으로 외적 확장을 하면서 자신만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고 있고, 또한 화자는 가을에 떨어 떨어 가는 외적인 상황을 외로움이 머물어 가는 마음으로 내면화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있다.
- ② '하늘'이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도록 만들었다고 한 것은 역설적 발상이라 할 수 있다.
- ③ 자신의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현실적 처지에 대한 화자의 인식 전환이 나타나 있다.
- ④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 '~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 ~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하고 있다.
- ⑤ '나를 울려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는 글자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다. '울려하다'는 '힘으로 밀어붙이다'라는 의미이므로, 이는 화자가 자신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밀어붙이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참고하기-1] 화자의 지향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

프랑시스 잼은 전원의 소박한 삶을 즐기며 거기서 우러난 서정을 노래한 시인이고, 도연명은 관직을 버리고 전원의 소박한 삶을 택한 시인이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평생 병약한 몸으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고독한 집필 과정 속에서 독특한 시 세계를 구축한 시인이다. 세 시인 모두 '외롭고 높고 쓸쓸한' 시인의 표상으로 시인 자신과 동질감을 느끼는 인물로 볼 수 있다.

[참고하기-2] 백석 그리고 윤동주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 경, 옥 이런 이국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란시스 잼」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 윤동주, 「별 헤는 밤」 中 -

→ 24~29행 : 자기 운명에 대한 긍정적 수용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극복 의지

-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 울려하는 : 힘으로 밀어붙이는.

한글 불 지문 "비교하기, 평가원 기출로 확인- '2004학년도 9월 백서, 「흰 바람벽이 있어」 外 "

(가)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A」 —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그는 몰랐다.

- 신경림, 「갈대」 -

(나)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십오 축(十五燭)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등등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즈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구국을 끓여 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여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또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려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B] —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쓰 켄」과 도연명(陶淵明)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

* 때글은: 때에 전.

(다)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白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방(房)은 우주(宇宙)로 통(通)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風化作用)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魂)이 우는 것이냐

지조(志操)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윤동주, 「또 다른 고향(故鄉)」 -

문제 1	[A]와 [B]의 의미를 중심으로 비평문을 쓰고자 한다. 그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 선지	① 삶의 본질적 의미 ② 삶의 고난과 좌절 ③ 세속적 삶의 비판 ④ 삶의 신비와 동경 ⑤ 행복한 삶과 불행한 삶
정답 해설	① (가)에서 시적 자아의 대리자로 등장한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바람도 달빛도 아닌', '제 조 용한 울음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 [A]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또 (나)의 시적 자아는 외롭고 쓸쓸한 삶으로 인해 슬퍼하다가,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 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하늘이 낸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수용하 고 있다. 결국 [A]와 [B]에서는 삶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p>문제 2</p>	<p>'흰 바람벽'을 영화 스크린으로 가정하고 (나)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문제 선지</p>	<p>① 시적 자아가 '흰 바람벽'을 마주 보고 있는 것은 영화를 보고 있는 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시적 자아의 고립적 상황을 강화한다. ② '흰 바람벽'에 비친 '무명셔츠'의 그림자는 스크린에 비친 물체의 그림자를 연상시킨다. ③ '또 어인 일인가'는 '가난한 늙은 어머니'의 영상이 스크린에 갑자기 나타나는 느낌을 효과적으로 살려낸다. ④ '어머니'가 나오는 장면과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는 장면은 병치의 기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⑤ '흰 바람벽' 위로 지나가는 '글자들'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나타나는 움직이는 글자들을 연상시킨다.</p>
<p>정답 해설</p>	<p>① (나)에서 시적 자아는 좁은 방에 누워 희미한 불빛, 서글픈 느낌을 자아내는 방의 차갑고 흰 바람벽을 바라보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떠올려 본다. 여기서 '흰 바람벽'은 마치 영상을 보여 주는 영화의 스크린과 같은 기능을 한다. 시적 자아가 떠올린 생각들이 흰 바람벽에 투사되어 이미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흰 바람벽에는 영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자막과 같은 글자들도 지나간다. 결국 이 시는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우리 모두의 자화상을 스크린 영상에 담은 것처럼 표현해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시적 자아가 흰 바람벽을 마주 보고 있는 것은 영화를 보고 있는 상황과 유사하다. 그러나 그 상황이 자아의 고립적 상황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적 자아가 떠올린 기억과 추억들을 펼쳐 보여 줌으로써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상황을 강화해 준다고 할 수 있다.</p>
<p>문제 3</p>	<p><보기>는 문화적 상징의 맥락에서 (다)의 시어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활용하여 (다)의 시어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보기></p>	<p>백골 : 불안, 결핍, 순결, 금욕, 목상의 대상 방 : 공포, 밀폐, 비밀, 몽상, 폐쇄적 환상 어둠 : 혼돈, 기원, 성숙, 휴식, 물질적·정신적 힘의 교류 바람 : 권능, 영감, 전달, 공기, 순수성과 열정 개 : 감시, 총직, 통찰력,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매(靈媒)</p>
<p>문제 선지</p>	<p>① '백골'은 시적 자아의 빈약하면서도 정결한 삶을 상징한다. ② '방'은 시적 자아의 내면에 깊숙히 존재하는 정신적 공간을 상징한다. ③ '어둠'은 시적 자아의 고통의 근원이자 영혼을 성숙시키는 존재이다. ④ '바람'은 시적 자아의 영혼을 소멸시키는 대기의 힘을 의미한다. ⑤ '개'는 시적 자아의 영혼을 일깨워 우주로 안내하는 존재이다.</p>
<p>정답 해설</p>	<p>④ (다)는 고향이란 공간을 통해, 현실적인 갈등과 절망감을 극복하고 이상적인 상태('또 다른 고향')를 추구하고 있는 작품이다. 시적 자아가 찾아온 현실적인 '고향'은 음산하고 어두운 '방'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공간으로, 백골이 풍화 작용으로 사라져 간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온 '나'는 현실의 시련으로 인해 죽어 가고, 이것이 '백골'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을 자극하는 것은 '바람'과 밤을 새워 우는 '개의 울음'이다. 한편 '또 다른 고향'이란 이상적 자아('아름다운 혼')가 도달하고자 하는 정신적 안식처이다. 결국 이 시는 현실적 자아인 '백골'과 '나', 그리고 부정적 현실을 극복한 이상적 자아인 '아름다운 혼'의 설정을 통해,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노래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p>

문제 4	<보기>를 통해 (가)~(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p>화가 렘브란트가 가장 잘 이해하고 다루기 쉬운 모델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는 자화상을 통해 얼굴 표현 방식 등 다양한 예술적 기법을 시도했을 뿐 아니라, 고독한 내면과 삶의 비애, 자기 확신, 그리고 화가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가난으로 고통 받았던 말년에 그린 두 폭의 자화상이 있다. 하나는 황금색 옷으로 치장하고 지팡이를 쥐고 앉아 있는 당당한 모습을 그린 것이며, 다른 하나는 권태와 회한으로 가득한 얼굴을 한 초라한 노인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 두 자화상이 모순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자화상을 보는 기준이 화가가 자신의 얼굴을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模寫)하고 있는가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렘브란트의 자화상에는 화가의 삶의 역정과 영혼의 기록이 있다.</p>
문제 선지	<p>① (가)의 '갈대'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렘브란트의 자화상에서 느껴지는 이미지와 유사하다. ② 두 자화상의 묘사 기법의 차이는 (가)에서 '그'와 '갈대'에 대한 시인의 태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③ (나)에서 ㉠을 통해 시인이 말하고자 한 것은 렘브란트가 자화상을 그린 동기를 설명해 준다. ④ (나)의 시인의 생애는 한 폭의 자화상으로 응축해서 표현할 수 있다. ⑤ 자화상의 인물을 통해 렘브란트의 내면을 읽는 것은 (다)에서 '나'를 시인 윤희주와 동일한 인물로 설정하고 시를 읽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p>
정답 해설	<p>② <보기>는 화가 렘브란트가 남긴 자화상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렘브란트는 자화상을 통해 얼굴 표현 방식 등에서 다양한 예술적 기법을 시도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남긴 두 자화상의 묘사 기법이 차이가 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가)에서 '그'는 '갈대(시적 자아의 분신)'를 지칭하는 3인칭 호칭으로 '갈대'와 같은 존재라는 점에서 둘에 대한 시인의 태도가 차이가 난다는 ②는 시를 제대로 이해한 내용이라 볼 수 없다.</p>

고전산문 [42~45번 지문] [작자미상, '창선감의록']

“내가 어찌하고 불초하여 어린 돌들과 어울리는 바람에 흉한 동생과 어진 아내가 원한을 품고 집을 떠난 지다”

#EBS 수능특강 연계 #수능특강(p120) #사용설명서(p118)

[작품 '한눈'에 보기] “이해를 조금 돕는 정으로 가볍게”

[전체 줄거리]

화옥에게는 세 부인이 있었는데, 심 씨에게서 장자 화춘(경옥)을, 정 씨에게서 기린의 태몽을 꾸고 차자 화진(형옥)을, 요 씨에게서 딸 화빙선을 얻는다. 화춘의 사람됨이 용렬해서 화옥은 화진을 편애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심 부인과 화춘의 불만이 쌓인다. 다만 심 부인은 화옥과 시누이(화옥의 누나)인 성부인을 두려워하여 감히 이 불만을 드러내진 않는다. **[EBS 출제부분] 그러다 화옥이 상춘정에서 장자 화춘을 음란하고 경박한 아이라고 심하게 질책하며 앞으로 모든 것을 화진으로부터 배워서 행동하라는 명을 하자 화춘은 이로 인해 더욱 이를 갈고 화진을 괴롭히게 된다.** 또한 화빙선 역시 정 부인 손에서 자라났다 하여 소저 또한 미워한다. 한편 조정에선 권력이 간신 엄 승상에 의해 장악당하고 남 어사가 엄 승상을 탄핵했으나 도리어 유배를 가게 된다.

[tip] 화진에 대한 화춘과 심씨의 생각

화춘 : “하늘에서 내린 재주가 보통 사람과 다르며, 그 거동이 모범이 될 만한 사람”

심씨 : “기이한 인물로서 영귀하여 종족의 추앙을 받고 비복이 따르며, 장차 황제의 총애를 입어 용이 구름 위에 오르고 호랑이가 바람을 타는 것과 같이 될 상”

⇒ 위 내용은 작품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두 인물은 화진을 자신과는 질적으로 다른,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뛰어난 존재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심 씨와 화춘의 분노는 '질투' 및 '열등감'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은 곧 장자로서 가문을 이을 화춘의 입지를 불안하게 만들며 심씨와 화춘이 화진을 제거하려고 하는 전개의 개연성을 불어넣는다.

화옥은 조정에 간신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와 더불어 화춘은 임소저와 혼인하고 화진은 마침 화씨 집안을 방문한 윤시량과의 통혼을 통해 윤시량의 딸 윤혹화(홍염)와 윤시량의 양녀였던 남채봉과 정혼하게 된다. 그러다가 화옥과 정씨가 병을 얻어 죽고 성부인도 집안을 임소저에게 맡기고 떠나게 된다. **[EBS 출제 (중략) 이후 부분] 가부장이 된 화춘은 불량배들인 범한과 장평을 통해 조녀를 들이고 정실인 임소저를 내쫓고 조녀를 그 자리에 앉힌다. 또한 화춘과 심씨는 화옥 내외와 성부인이 없어지자 화진과 화빙선(소저)을 모함하고 학대하며** 특히 화진에게 매질을 심하게 가한다. 그러나 돌아온 성부인에게 탄로나 엄히 경고를 받는다.

한편 남씨 집안은 남어사가 탄핵되어 악주로 내려가다 형주에서 엄승상의 부하들을 만나게 되고 부모자식이 헤어지게 되었다. 강물에 몸을 던진 남어사 부부는 신선 광공을 만나 목숨을 건진다. 시녀와 함께 도망친 남채봉은 친척이었던 진씨 집안에 의탁하게 되고 이곳에서 진제독의 딸 진채경과도 친해진다. 마침 진제독의 처 오씨와 친척이었던 윤시량이 남채봉을 만나 양녀로 삼게 되었던 것이다. **[16학년도 9월 평가원 출제 부분] 진씨 집안의 진채경은 본래 윤시량의 아들 윤여옥과 정혼한 관계였다. 그런데 엄승상의 양아들 조문화가 진채경의 미모를 보고 아들과 억지로 혼인하도록 압박하자, 진채경은 남장을 하고 달아나 오빠의 집에 의탁한다.**

화진은 장원에 급제하여 황제의 기쁨을 받는 등 승승장구하며 집으로 돌아와 성 부인의 환대를 받는다. 그러나 성 부인은 곧 아들 성준과 함께 떠났고 심씨와 화춘은 더 노골적으로 괴롭힌다. 화진은 화춘으로 인해 벼슬을 잃었으며 이어 화춘과 어울리던 범한은 계락을 통해 화진을 서자로 강등시키고 또 조월향(범한 등이 화춘에게 들인 여자)이 남채봉에게 독약을 먹여 죽이려 하나 남채봉은 간신히 달아난다. 이 사건으로 남부인(남채봉)은 실종된다. 그러나 화춘의 모함으로 결국 옥에 갇히게 된 화진은 사실대로 말하면 모친과 형에게 피해가 갈까봐 침묵하며 죽음을 자초한다.

이때 윤여옥이 계략(윤여옥은 누이 윤옥화로 변장하여 엄태상에게 화진의 목숨을 구해주면 결혼해 응하겠다고 하자 엄태상이 부친 엄승에게 부탁하여 화진의 목숨을 연장시켜 달라 말함)으로 다시 엄승을 움직여 화진은 목숨을 건지고 유배를 간다. 이때 윤여옥은 엄태상의 집에 들어가 엄월화를 만나 자신이 남자임을 밝힌 뒤에 정혼을 하고 그녀의 도움으로 무사히 엄태상의 집에서 빠져 나간다. 한편 화진은 유배를 가던 중 범한이 보낸 자객들에게 죽을 뻔하지만 유성희라는 장수의 도움으로 살아난다. 또한 유배지에서 선인 곽공을 만나 병법을 배운다.

[tip-1] 화진의 성격

화진은 종통(가문을 잇는 것)에 대한 욕구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형 화춘과 의붓어미 심씨의 학대에도 한결같이 그 권위에 복종한다. 심지어 모친 심씨를 살해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도 형과 모친에게 피해가 갈까봐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려 한다. 의붓어미라 할지라도 효를 다하며 난폭한 형에게도 신의를 다하는 화진의 이러한 태도는 그의 수난을 더 가혹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결과를 만든다.

[tip-2] 엄승의 아들들

- ① **조문화** : 윤시량의 아들 윤여옥과 정혼한 진채경의 미모를 보고 반하여 강제로 혼인하도록 압박.
- ② **엄태상** : 화진과 정혼한 윤옥화를 탐내며 정혼에 대한 압박을 줌.
 ⇨ 남의 아내나 정혼한 처지의 여인들을 본인의 욕심으로 권력을 남용하여 질서를 어지럽히는 인물들이다. 이들의 아버지인 엄승은 이러한 권력남용에 정점에 있는 인물로 표상된다.

화진은 유배지에서 해적을 소탕하라는 황제의 명을 받는 한편 화춘은 화진을 모함한 것이 탄로나 옥에 갇힌다. **[한수 출제 부분] 이어 큰 위험에 처한 화춘과 심씨는 눈물로 지은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명을 받았던 화진은 공을 세워 천자로부터 진국공의 봉작을 받는다. 이 공으로 황제는 화춘을 풀어주고 화진의 직위도 높여준다. 그 뒤 화진을 시기하던 가족들도 모두 개과천선하여 화목한 가문을 이루게 된다.**

주제	가문 구성원들의 갈등과 화해, 국가적 위기의 해결
작품 풀이	이 작품은 효와 형제간의 우애처럼 보편적인 권선징악을 주제로 하면서, 일부다처제와 가부장 제도라는 전통적 가치관 아래 집안에서 일어나는 가족 간의 갈등이나 조정에서 벌어지는 권력 투쟁 등을 사실감 있게 묘사한다. 시종일관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구성이 치밀하고 사건 전개가 매끄러워 흥미진진함을 느낄 수 있다.

[<보기>를 통한 작품 이해] “선기를 바탕으로 작품 내 주된 특성을 파악하라.”

‘한수 모의고사’ <보기>	
	「창선감의록」은 주인공이 이복형과 이복형의 어머니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효행과 우애를 실천하여 이들을 개과천선(改過遷善) 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을 표창하고 의로움으로 감화시킨다.’라는 제목처럼 주인공은 지극한 선을 표상하는 인물로, 선행을 통해 가정 내 불화를 해소하고 가문의 번영은 물론 사회의 안정까지 이뤄 낸다. 이처럼 「창선감의록」은 가족 간 갈등의 해소 과정을 통해 충효와 우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BS 연계 학습 '지문' -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 "EBS 연재가 분명히 '전편'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앞부분 줄거리] 이복형 화춘(경옥)과 화춘의 어머니 심 씨에게 핍박을 받던 화진(형옥)은 화춘의 모함으로 유배를 가게 되나, 유배지에서 해적을 소탕하라는 황제의 명을 받는다. 한편 화춘은 화진을 모함한 것이 탄로 나 옥에 갇힌다.

이 말을 들은 유 학사는 윤 중승을 찾아가 만났다.

"형은 형옥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진 사람이지요."

"자신 때문에 그 형이 죽었는데, 어진 사람이라면 세상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는 길에 형옥을 만났는데, 형옥이 하늘을 우러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아! 혹시라도 윤장원이 내 마음을 안다면 힘써 줄 거요.'라고요."

윤 중승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소."

윤 중승은 즉시 정 상서를 찾아가서 말했다.

"화형옥은 우애가 지극하기로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형이 아침에 죽으면 아우는 저녁에 목숨을 끊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은 통쾌하지만, 어진 사람을 죽이게 되었으니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 공이 말했다.

"그대 말도 맞소. 그러나 화춘의 죄가 중하니 열 사람이 죄를 나눈다고 해도 살아나기 힘드오. 그러니 어찌겠소?"

윤 중승이 말했다.

"감히 오늘 당장 화춘을 석방시켜 달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고문을 좀 약하게 하면서 형옥이 돌아올 때를 기다렸다가 형옥이 돌아온 뒤 상황을 봐 가면서 처리했으면 하는 겁니다."

"좋소."

이때 화춘은 이미 뺨속 깊이 뉘우치고 울면서 자책을 했다.

"그동안 나한테 아부하기로는 범한과 장평, 조 씨가 제일이었고, 어머니한테 아부하기로는 계향과 난향이 제일이었지. 그런데 범한이 그놈은 조 씨를 끼고 달아났고, 장평이 높은 내 잘못을 고발했으며, 계향이는 어머니를 수령으로 밀쳐 빠뜨렸다. 난향이 살아 있다고 해도 흥계를 꾸미지 않을 줄 어찌 알겠어? 내가 어리석고 불초하여 이런 놈들과 어울리는 바람에 훌륭한 동생과 어진 아내가 원한을 품고 집을 떠난 거야. 나 같은 놈은 죽어도 마땅하지. 그러나 훗날 저세상에 가면 무슨 면목으로 형옥과 임 씨를 만날 수 있을까?"

밤에 꿈을 꾸면서도 형옥을 부르다가 목에 찬 칼에 눈물을 떨구었다. 이 광경을 본 옥리들이 모두 가련히 여겼다. 한편 심 씨 또한 잘못을 뉘우치고 착한 마음으로 말했다.

"내가 형옥을 박대한 것은 선공의 편애가 너무 심해서 마음이 상한 데다가 상춘정의 일* 때문에 원한이 뺨속에 사무쳤기 때문이었어. 그러나 십 년 동안 형옥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에게 정성을 다했고 끝까지 나를 원망하지 않았으니, 이 아이야말로 진정한 효자야. 그러니 선공께서도 형옥을 아끼고 편애하셨던 게야. 이제 나날이 내 허물이 드러나고 형옥의 원통함이 속속들이 밝혀지는 걸 보면 하늘을 속일 수는 없는 법이야. 게다가 돌아가신 뒤로 한 번도 꿈에 나타난 적이 없던 선공께서 근래 자주 꿈에 나타나 온화하게 웃으면서 나에게 말씀하셨지. '처음에 악한 사람이 나중에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착하던 사람이 악해지는 것보다 훨씬 낫소. 이제 아이와 며느리를 그대에게 맡기겠소. 복을 누리면서 오래오래 잘 사시오.'라고. 그러다가 깨어 보면 이마에 땀이 흥건하곤 하지. 아아! 평생 내가 한 일이라고는 죄짓는 일밖에 없었으니,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천지에 사죄해야겠지. 그렇지만 내가 죽고 나면 형옥의 효성에 보답할 길이 없으니 구차하더라도 꼭 참고 살아남아서 효자의 마음을 위로해 줘야겠다."

[중략 줄거리] 화진이 해적을 소탕하고 반란을 진압하는 등의 공을 세우자 황제는 화진의 벼슬을 높이고 화춘도 풀어 준다.

그날 진 공은 집으로 돌아와 면복* 차림으로 심 부인에게 절을 올렸다. 심 부인은 기쁨이 벅차올라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덕행이 그토록 지극했던 네 아버지와 정 부인은 네가 오늘날 이처럼 영광스럽게 되어 효도하는 것을 못 보는데, 어질지 못하고 도리도 모르는 나만 살아남아 이 복을 혼자서 누리니, 하늘의 이치를 알 수가 없구나.”

진 공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경옥이 진 공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니, 따스한 봄기운이 다시 집 안에 넘쳐 났다. 이후로 형제가 정당에서 문안을 드리거나 식사 시중을 할 때면, 심 부인은 진 공부부터 먼저 챙기고 경옥은 그다음에 돌아보았다.

하루는 진 공이 어쩌다 감기에 걸려서 며칠을 앓게 되었다. 심 부인은 베갯머리에서 간호하며 잠시도 떠나지 않았고, 경옥은 스스로 약탕기를 들고 불을 피워 약을 달였다. 유 학사가 이를 보고 감탄했다.

“경옥이 허물을 뉘우친 뒤로는 오히려 형옥보다 더 어진 사람이 되었구려.”

- 작자 미상, 「창선감의록」 -

* 상춘정의 일: 선공이 가족들 앞에서 화진을 본받으라며 화춘을 크게 꾸짖은 일을 말함.

* 면복: 황제나 고관들이 특별한 행사 때 입는 예복.

[EBS 연계 학습 '작품'] “EBS 연계가 분명히 ‘진생’는 아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EBS 연계 POINT

[포인트 1] 가문 구성원에 대한 화춘의 생각

화춘	→	본인	모친으로부터 편애를 받아 멋대로 자랐음을 인정함.
	→	화옥(아버지)	자신(화춘)을 과도하게 꾸짖으며 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여김.
	→	화진(동생)	능력이 뛰어나고 예의가 바름을 인정함.

[포인트 2] 가문 소설 속 갈등 양상의 특징

- 첫 번째 부인이나 장자가 꼭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는 않음.
- 두 번째 부인이나 차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함.
- 가부장이 존재하지 않기도 함.
- 가문 소설은 가부장의 부재나 장자의 결함 등을 통해 갈등을 만들어 서사의 동력을 생성해 나감.

EBS 사용설명서, 「더 알아보기」

• 가문소설의 특징

가문 소설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고전 소설 유형이다. 가문 소설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소설 향유층에 진입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영웅 소설이 주인공의 영웅적 행적과 국가적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다면, 가문 소설은 주인공의 결연이나 가문 내에서의 갈등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점에서 가문 소설은 조선 후기 소설사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EBS 핵심 문제	
<보기>	가문 소설은 대체로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작품에 첫 번째 부인이나 장자(長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부인이나 차자(次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가부장이 늘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가부장이 죽거나 멀리 떠나고 이를 대체하는 다른 존재가 등장하기도 한다. 작품은 가부장, 첫 번째 부인, 장자의 결함 혹은 부재를 통해 갈등을 야기하고 서사의 동력을 생성해 내게 되는 것이다.
발문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 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심 씨와 화춘이 '정 부인 모자를 원망하여 자나 깨나 이를' 가는 것으로 보아, 심 씨는 정 부인 모자 때문에 자신과 아들의 가문 내에서의 지위가 흔들린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군. ② '성 부인이 잠시 옛집으로 떠난 뒤'에 심 씨가 득세하는 것으로 보아, 화옥이 죽은 후 성 부인이 가부장의 역할을 하며 가문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군. ③ 요 부인의 유모 취선의 한탄에 화빙선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화빙선은 가문의 첫 번째 부인인 심 씨에게 불만을 느끼면서도 이를 표출하지 않으려 함을 알 수 있군. ④ 심 씨의 시녀 난향이 취선의 말을 엿듣고 '재빨리 뛰어가 심 씨에게 고'한 것으로 보아, 난향은 가부장이 죽은 뒤 가문 내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⑤ 화진이 심 씨에게 '어찌 차마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냐고 따져 묻는 것으로 보아, 화진이 심 씨의 가문 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함을 알 수 있군.
정답 해설	⑤ 화진이 심 씨에게 따져 묻는 것은 그녀를 모부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심 씨가 억측으로 화진과 화빙선, 취선 등을 몰아세우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심 씨는 첫 번째 부인이고, 화춘은 그녀가 낳은 장자이다. 이 둘은 두 번째 부인 정 씨와 그의 아들 화진이 자신들의 가문 내 지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한다. ② 성 부인이 잠시 옛집으로 떠나자 심 씨는 가문 내에서 다른 구성원들을 포함하고 혼낸다. 이를 통해 화옥이 죽은 뒤 성 부인이 가부장을 대체하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심 씨는 화빙선이 정 부인의 손에서 자랐다고 하여 화빙선을 미워하였다. 성 부인이 그녀의 앞날을 걱정할 정도였다. 그런데 성부인이 잠시 집을 비우자 심 씨가 본색을 드러냈다. 이에 취선이 화빙선에게 문제 제기를 하지만 그녀는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다. ④ 난향은 화진이나 화빙선의 흠결을 찾아내어 이를 심 씨나 화춘에게 일러바침으로써 심 씨가 가문 내에서 기득권을 잡도록 도와주는 존재이다. 이로 인해 가문 내 갈등은 증폭된다.

[한글 불 지문] "비교하기, <같은 작품, 다른 부분>, 평가원 -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B, 「참선강의록」"

그 이전에 진 공이 병부에서 벼슬을 살던 때였다. 엄송의 가자(假子) 조문화는 진 소저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제 자식을 위해 진 공에게 혼인을 청한 적이 있었다. 그때 진 공이 엄한 말로 거절하자, 조문화는 매우 노하여 엄송에게 사주해 공을 노안부 제독으로 내쫓게 했다. 그 무렵에 다시 양식을 시켜 '진공이 사사로이 태원의 돈 삼십만 냥을 훔쳤다.'고 무고하게 했다. 그리고 금위옥에 가둔 뒤 온갖 방법으로 죄를 조작하게 했다. 조문화는 오 부인과 진 소저가 옛집으로 올라왔다는 말을 듣고는 부인의 종형 오 낭중이라는 자를 불러 놓고 말했다.

[A] "진형수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지. 그렇지만 내가 진실로 한번 입을 연다면 죽히 목숨은 구할 수 있을 것이니라. 지난날에 형수가 나를 지나치게 무시하여 혼인을 박탈하게 거절한 적이 있었다. 이제 와서 내가 그 원한을 물어 둔 채로 덕을 베풀어 주지는 못하겠다. 들으니 그대는 형수와 인척이 된다 하더군. 만일 형수가 살아서 옥문을 나서게 하고 싶다면 시험 삼아 나를 위해 형수의 딸에게 내가 한 말을 전해 주어 보거라. 그녀가 만일 효녀라면 스스로 거취할 방도를 필시 깨우치게 될 것이니라."

오 낭중은 본시 권세를 두려워하여 예에 하고 대답만 할 줄 아는 위인이었다. 그는 공손하게 손을 모은 채 명을 받은 뒤 오 부인을 찾아가 조문화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오 부인은 크게 노했다.

"조가 도적놈이 감히 우리 딸에게 욕을 보이려 한다고?"

그러자 진 소저가 분연히 고했다.

"옛날 효녀 중에는 스스로 관비가 되기를 청하여 제 아버지의 죽음을 면하게 한 자가 있었으며, 또한 자신을 팔아 제 부모의 장사를 치르게 한 자도 있었습니다. 소녀의 신체발부는 모두 부모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제 부친께서 중죄를 받을 형편에 놓이신 마당에 자식 된 자로서 ㉡어느 겨울에 일신의 욕과 불욕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오 부인은 평소 소저의 빙옥 상설 같은 지조를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 말도 하지 못한 채 한동안 눈물만 흘리다가 마침내 탄성을 발했다.

[B] "슬프다! 총계정에서 학을 읊은 시가 죽히 너의 성안(成案)이 되고 말겠구나. 내가 어찌 네 마음을 의심할 리 있겠느냐? 그러나 딸을 죽여서 그 아버지를 구한다면, 산 사람의 마음이 오죽이나 하겠느냐? 옛 사람이 이르기를, '황금을 걸어 놓고 도박을 벌이면 그 지혜가 더욱 어두워진다.'고 했지. 지금 내 마음은 황금을 건 것에 비할 바가 아니로구나. 네 스스로 잘 생각해서 현명하게 처신하거라."

진 소저는 ㉢추호도 망설이는 기색이 없이 친히 오 낭중을 향해 혼인을 허락했다. 오 낭중은 몹시 기뻐하며 조문화에게 돌아가 그녀의 말을 전했다. 조문화는 미칠 듯이 기뻐하더니 그 이튿날 다시 엄송을 사주해 진 공의 옥사를 천자에게 아뢰게 했다. 이윽고 천자는 진 공의 사형을 감하는 대신 운남으로 귀양을 보내게 했다.

(중략)

마침내 진 공은 오 부인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 뒤 진 소저는 침실로 돌아가 자리에 누운 채 밤낮없이 엉엉 울고 있었다. 그때 조문화의 가인(家人)들이 속속 찾아와 진 소저에게 혼인을 재촉했다. 진 소저는 유모로 하여금 말을 전하게 했다.

"방금 부모님을 작별했으므로 정회가 망극하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수십 일 정도를 보내면서 마음을 조금 진정시킨 연후에 성례하면 좋을 듯합니다."

조문화의 가인이 돌아가 진 소저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조문화의 아들은 다급하게 서둘러 마지않았다. 조문화가 말했다.

"인정상 본디 그럴 것이니 그 말대로 따르도록 하거라. 또한 저 아이는 이미 주머니 속에 든 물건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다. 서두르지 않는다고 달아날 곳이 있겠느냐?"

사오일 뒤 조문화는 시비로 하여금 진 소저를 찾아가 살펴보게 했다. 진 소저는 머리를 풀어 얼굴을 가린 채 이불을 덮고 신음하고 있다가 희미한 목소리로 유모를 불러 놓고 일렀다.

“슬픔으로 심란하던 차에 다시 감기에 걸리고 말았네. 이제는 마음도 추스르고 병도 조절하여 속히 쾌차한 후에 부모님을 살려 주신 큰 은혜를 보답하려 하네. 그런데 지금 바깥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니 내 마음이 편하질 않구려.”

그 사람이 돌아가 진 소저의 말을 조문화에게 그대로 전했다. 그러자 조문화는 몹시 기뻐했다.

“진실로 뛰어난 효녀로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로구나. 이제 그 뜻에 순종하여 화를 돌우게 하지 마라. 앞으로도 모름지기 매일 문밖에서 동정을 살피되 집 안에는 다시 함부로 들어가지 말거라.”

다시 10여 일이 지난 뒤 진 소저는 공의 행차가 이미 멀리까지 갔으리라 짐작하고 유모 및 시녀 운섬 등과 함께 야밤에 간단하게 행장을 꾸렸다. 그리고 모두 남장을 한 뒤 나귀 한 필을 끌고 회남을 향해 떠나갔다.

그 이튿날에도 조문화의 가인이 소저를 찾아갔더니 빈집만 황량할 뿐 다시는 인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사람은 몹시 놀랍고도 의아하여 마을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저 집 소저가 어디로 갔습니까?”

마을 사람은 쌀쌀하게 대답했다.

“소저고 대저고 나는 모릅니다.”

그 사람은 무안만 당하고 돌아가 조문화에게 고했다.

- 작자 미상, 「창선감의록」 -

문제 1	읽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 선지	① 진 소저가 부모님과 이별한 뒤 집 안에 머문 것은 혼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② 조문화의 아들은 진 소저와의 혼인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조급해하며 혼인을 서두르고 싶어 했다. ③ 조문화는 진 소저의 부모가 떠났다고 하여 아들과 진 소저의 혼사가 무산될 것이라고는 여기지 않았다. ④ 운섬은 진 소저와 함께 밤중에 행장을 꾸려 길을 떠났다. ⑤ 마을 사람은 진 소저의 행방에 대해 조문화의 가인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았다.
정답 해설	① ‘진 소저는 추호도 망설이는 기색이 없이 친히 오 낭중을 향해 혼인을 허락했다.’가 ‘마침내 진 공은 오 부인과 함께 길을 떠났다.’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제시된 것으로 볼 때, 진 소저의 혼인 여부는 진 공과 오 부인이 함께 길을 떠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된 상황이다.
오답 풀이	② 부모가 떠난 후 진 소저가 수십 일 정도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 성례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조문화의 아들은 결혼을 다급하게 서두르고 있다. ③ ‘또한 저 아이는 이미 주머니 속에 든 물건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다. 서두르지 않는다고 달아날 곳이 있겠느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다시 10여 일이 지난 뒤 진 소저는 공의 행차가 이미 멀리까지 갔으리라 짐작하고 유모 및 시녀 운섬 등과 함께 야밤에 간단하게 행장을 꾸렸다. 그리고 모두 남장을 한 뒤 나귀 한 필을 끌고 회남을 향해 떠나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조문화의 가인이 소저의 행방을 묻자 마을 사람은 쌀쌀하게 모른다고 대답했다.
문제 2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 선지	① [A]는 청자와의 동등한 관계를 전제로, [B]는 청자와의 상하 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② [A]는 지난 일을 들어 청자에 대한 원한을 드러내고, [B]는 이전에 쓰인 글을 떠올려 청자에 대한 원망을 표출한다. ③ [A]는 청자에게 선택 가능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여, [B]는 선택 가능성을 제한하여 청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한다.

	<p>④ [A]는 가정할 수 있는 상황을 들어 자신의 의중을 청자에게 전하고, [B]는 비교할 만한 상황을 들어 자신의 의중을 청자에게 드러낸다.</p> <p>⑤ [A], [B] 모두 이상적 가치를 내세워 자신의 결정을 청자가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다.</p>
<p>정답 해설</p>	<p>④ 조문화는 [A]에서 '내가 진실로 한번 입을 연다면 족히 목숨은 구할 수 있을 것이니라.' '만일 형수가 살아서 옥문을 나서게 하고 싶다면 시험 삼아 나를 위해 형수의 딸에게 내가 한 말을 전해 주어 보거라.' 등 가정할 수 있는 상황을 들어 자신의 의중을 청자인 오 낭중에게 전하고 있다. 오 부인은 [B]에서 '지금 내 마음은 황금을 건 것에 비할 바가 아니로구나.'라는 비교할 만한 상황을 들어 자신의 의중을 청자에게 드러내고 있다.</p>
<p>오답 풀이</p>	<p>① [A]에서 조문화는 자신의 권세에 의거하여 오 낭중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고, [B]에서 오 부인은 딸(진 소저)의 현명한 처신을 바라고 있다. [A]에서 동등한 관계를 전제로 [B]에서 상하 관계를 이용하여 목적을 이루려는 것은 아니다.</p> <p>② [A]에서 조문화는 지난 일을 들어 진형수에 대한 원한을 드러내는 것이지 청자인 오 낭중에 대한 원한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B]에서 오 부인은 청자인 딸에 대해 원망을 표출하고 있지 않다.</p> <p>③ [A]에서 조문화는 오 낭중에게 선택 가능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형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진 소저가 자기 아들과 결혼해야 한다는 하나의 방안만 제시하고 있다. [B]에서 오 부인은 딸의 선택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딸에게 선택을 맡기고 있다.</p> <p>⑤ [A]와 [B]에서 화자가 이상적 가치를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p>
<p>문제 3</p>	<p><보기>를 바탕으로 밑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보기></p>	<p>조선 후기에 들어 가문을 둘러싼 갈등과 정치적 대립이 서사화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임금과 신하의 권력 관계가 역전된 정치적 구조에서 권세 있는 신하가 정치를 좌우하는 현실이 소설에 반영된다. 이러한 정치적 문제는 가문의 문제에 연결되면서 가족 구성원이 고난을 겪는 서사 구성으로 드러난다. 이때 자신의 판단과 지략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적극적 인물들이 나타난다. 이들은 사리 판별을 돕는 인물이나 주변 인물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p>
<p>문제 선지</p>	<p>① 오 낭중이 가문 사이를 매개하는 것을 보니, 사리 판별을 하여 가족 구성원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모습을 알 수 있군.</p> <p>② 진 공이 옥에 갇히고 귀양을 가게 되는 과정을 보니, 권력을 가진 신하가 정치를 좌우하는 현실의 문제를 추측할 수 있군.</p> <p>③ 진 소저가 길을 떠나기까지의 과정을 보니, 자신의 판단에 따라 지혜롭게 문제 상황을 해결해 가는 적극적 인물의 면모를 알 수 있군.</p> <p>④ 조문화가 성사시키려 한 혼인 문제로 진 공의 가족이 고난을 겪게 되는 과정을 보니, 정치적 문제와 가문의 문제가 연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군.</p> <p>⑤ 유모가 조문화의 가인과 시비에게 말을 전하고 진 소저와 함께 남장을 하는 정황을 보니, 주변 인물이 적극적 인물에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p>
<p>정답 해설</p>	<p>① 이 글에서 오 낭중은 권세를 두려워하여 권력자인 조문화의 지시에 순응하고 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가 올바른 사리 판별을 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p>

<p>오답 풀이</p>	<p>② 조문화는 자신의 청혼을 진형수가 거절하자 그를 무고하여 옥에 가둔 후 나중에 귀양을 보내고 있는데, 이는 권력을 가진 신하가 정치를 농단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p> <p>③ 진 소저는 마음을 진정시킨다는 핑계로 성례를 미룬 후 병을 가장해 조문화를 안심시키고 있다. 그런 후에 부모가 멀리 이동했을 시점에 행장을 꾸리고 남장을 하여 회남으로 떠나고 있으므로, 지혜롭게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적극적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p> <p>④ 청혼을 거절한 것이 진형수 가문에 위기로 닥치는 상황을 통해 권세 있는 신하가 정치를 좌우하는 현실에서 정치적 문제와 가문의 문제가 연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p> <p>⑤ 이 글을 통해 주변 인물인 유모가 적극적 인물인 진 소저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p>
<p>문제 4</p>	<p>문맥을 고려할 때 ㉠~㉥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p>
<p>문제 선지</p>	<p>① ㉠: 나중에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다.</p> <p>② ㉡: 없는 자가 찬밥 더운밥을 가리랴.</p> <p>③ ㉢: 만사가 욕심대로라면 하늘에다 집도 짓겠다.</p> <p>④ ㉣: 산이 높아야 옥이 난다.</p> <p>⑤ ㉤: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p>
<p>정답 해설</p>	<p>② ㉡은 부친이 중죄를 받을 상황에서 딸인 자신이 욕됨과 그렇지 않음을 가릴 여유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②가 어려운 형편에 이것저것 따질 수가 없다는 것이므로 적절하다.</p>
<p>오답 풀이</p>	<p>① '나중에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다.'는 당장에 화풀이를 하지 못하고 두고 보자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다는 말인데, ㉠과는 관련이 없다.</p> <p>③ 진 소저가 혼인을 허락한 것은 아버지를 위기에서 구하려는 의도이지, 자신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함이 아니다.</p> <p>④ '산이 높아야 옥이 난다.'는 훌륭한 인물에게서 훌륭한 자손이 난다는 말로, ㉣과는 관련이 없다.</p> <p>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손해를 크게 볼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마땅치 아니한 것을 없애려고 그저 덤비기만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은 진 소저가 떠난 후 집이 텅 빈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p>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③ 독서

[참고] 아래 분석은 강사 본인이 직접 시험을 치르고 실제 읽었던 느낌을 기억하여 그대로 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석의 내용은 실전에서 이 정도 읽어주면 된다는 ‘선’을 여러분들의 ‘선’과 맞춰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와중에 이 정보가 왜 중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딱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는 읽었어야 하는 최소한의 ‘선’과 굳이 이해를 하자면 이렇다는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사회[16~20번 지문][불공정 약관 무효화와 관련된 원칙]

설명을 읽기 전에 먼저 한 번 정독할 것을 추천합니다.

약관은 사업자가 여러 명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약관도 일종의 계약이므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약관은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계약의 한 쪽 당사자인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을 담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약관규제법은 민법의 일반적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민법은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취소 사유가 있어 무효가 될 때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전부 무효 원칙이라고 한다. 약관규제법은 약관의 일부 조항이 취소 사유가 있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지속되도록 하는 잔부 유효 원칙을 적용한다. 가령 타당한 이유 없이 보험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면책조항이 약관에 삽입되면 이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된다. 하지만 이 경우 무효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유효한 조항만으로 계약을 지속시킬 수 있다. 이는 전부 무효가 되면 고객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고객이나 사업자 측의 실익도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 약관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면 예외적으로 계약은 전부 무효이다. 그런데 조항 자체가 아니라 하나의 조항에서 특정 내용이 무효인 경우에도 잔부 유효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가령 보험사가 과실의 경중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이 자사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한다는 의미의 포괄적 면책조항을 삽입하면, 이 조항은 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무효이다. 이 경우 잔부 유효 원칙에 따라 나머지 조항만으로 계약이 유지되고 법률상의 책임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사업자는 과실의 경중에 관계없이 자신의 과실로 인한 모든 법률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문제의 조항에서 무효인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만으로 해당 조항을 유지하게 하는,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을 할 수도 있다. 가령 법원이 약관규제법의 다른 조항들로 미루어 볼 때 사업자의 가벼운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의 면책이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면 문제의 조항을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은 배제된다.’라고 축소해석하여 유지하는 것이다.

잔부 유효 원칙은 약관 계약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과 허용되지 않는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따라서 효력유지적 축소해석 역시 형식적으로 하나인 약관 조항이 여러 내용을 포함하고 그것의 분리가 가능함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문제의 면책조항에는 경과실에 따른 면책조항과 중과실에 따른 면책조항이 합쳐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법원이 약관의 조항을 자의적으로 분할하여 해석·적용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을 허용하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한 약관의 사용을 방지한다는 약관규제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따르면 사업자는 약관 조항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법원이 합법적인 한계까지 축소해석해 줄 것이라 기대하게 되므로, 결국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은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작성하게 하는 유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조항의 일부 내용이 무효인 경우에도 합법적인 내용이 유지되도록 수정 해석하는 것이 고객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전 읽기]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약관은 사업자가 여러 명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C)을 말한다. 약관도 일종의 계약이므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약관은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계약의 한 쪽 당사자인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을 담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약관규제법(C)은 민법의 일반적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첫 문단은 꼼꼼하게 읽어줍니다. 개념들이 몇 개 제시되었는데, '약관'이라는 개념이 핵심개념 같아 보이네요. 우리에게 낯선 개념은 아닙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마다 보는 게 약관이니까요. 모두가 봤지만 제대로 읽어본 사람은 없는, '약관'에 대한 지문입니다.
- ② '약관'은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고객이 약관에 동의하게 되면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지요.
- ③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개념들 사이의 층위만 잘 잡아주면 됩니다. '약관'도 일종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약관'은 계약의 범주 안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약관 ↔ 계약'의 구도로 잡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 ④ 그럼 여기서 '약관'과 대비되는 대상으로 제시된 개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반적인 계약'입니다.
- ⑤ 그럼 둘을 구분 짓는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업자가 불공정한 내용을 담을 가능성이 '약관'에서 높다는 것입니다. 약관은 '사업자가 '미리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 ⑥ 위와 같은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 '약관규제법'인데, 이 '약관규제법'에는 민법의 일반적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위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위에서 '약관'도 '계약'이라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마지막 문장에서는 '약관규제법'에 민법의 일반적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연결해서 정리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약관' <--- '약관규제법'[C민법]

L, but! 민법의 일부 원칙은 그대로 적용X

민법은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취소 사유가 있어 무효가 될 때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전부 무효 원칙(C)이라고 한다. 약관규제법은 약관의 일부 조항이 취소 사유가 있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지속되도록 하는 잔부 유효 원칙(C)을 적용한다. 『가령 타당한 이유 없이 보험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면책조항이 약관에 삽입되면 이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된다. 하지만 이 경우 무효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유효한 조항만으로 계약을 지속시킬 수 있다.』 이는 전부 무효가 되면 고객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고객이나 사업자 측의 실익도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 약관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면 예외적으로 계약은 전부 무효이다. 그런데 조항 자체가 아니라 하나의 조항에서 특정 내용이 무효인 경우에도 잔부 유효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1문단 마지막에서 '민법의 몇몇 원칙들은 '약관규제법'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지요. 그 '원칙'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원칙이 2가지가 나오는데 실제로 약관규제법에 적용되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일단은 먼저 나온 '전부 무효 원칙'부터 보겠습니다.
- ② '전부 무효 원칙'의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법률행위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률행위'는 '약관'으로 연결될 것이고, '일부분'은 '조항'으로 연결되겠네요. '약관'과 '조항' 층위 잘 잡으시고, 개념 가볍게 이해해주면 됩니다.
- ③ 다음은 '잔부 유효 원칙'입니다. '약관규제법'에 적용되는 원칙은 '잔부 유효 원칙'입니다. 즉 '약관규제법'에는 '전부 무효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④ '잔부 유효 원칙'의 개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일부분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를 무효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었으니 읽으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⑤ '잔부 유효 원칙'이 아닌 '전부 무효 원칙'이 적용되는 예외 사례가 다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지문에서는 이러한 예외 상황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리해서 파악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⑥ 문단 마지막에 새로운 상황을 제시해주었는데, 층위 구분이 중요합니다. 점점 작은 단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약관'에서 '조항'으로 '조항'에서 '특정 내용'으로.

'약관'의 일부 '조항'에 문제 -> 잔부 유효 원칙 적용 가능

'조항'의 일부 '내용'에 문제 -> 잔부 유효 원칙 적용 가능?

『가령 보험사가 과실의 경중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이 자사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한다는 의미의 포괄적 면책조항을 삽입하면, 이 조항은 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무효이다. 이 경우 잔부 유효 원칙에 따라 나머지 조항만으로 계약이 유지되고 법률상의 책임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사업자는 과실의 경중에 관계없이 자신의 과실로 인한 모든 법률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문제의 조항에서 무효인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만으로 해당 조항을 유지하게 하는, 효력유지적 축소해석(C)을 할 수도 있다. 【가령 법원이 약관규제법의 다른 조항들로 미루어 볼 때 사업자의 가벼운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의 면책이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면 문제의 조항을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은 배제된다.'라고 축소해석하여 유지하는 것이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① 2문단 마지막에 제시해준 상황을 바로 사례(『 』)로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은 '조항'에 대해 잔부 유효 원칙을 적용해서 그 조항에 대해서는 '민법'을 적용하고 나머지 조항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이걸 2문단에서 들었던 사례와 동일한 경우네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하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② '하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은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조항의 특정 내용이 문제가 될 때 그 특정 내용만 제외하고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그럼 2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은 나온 셈이군요.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③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의 사례(【 』)도 바로 제시해주었습니다. 위의 사례(『 』)와 이 사례(【 』)의 차이가 보이나요? 위의 사례에서는 조항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버렸다면,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의 사례에서는 조항의 적용 가능 범위를 '과실'에서 '경과실'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과실'이 아닌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의 면책이 허용되지 않겠지요.

잔부 유효 원칙은 약관 계약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과 허용되지 않는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따라서 효력유지적 축소해석 역시 형식적으로 하나인 약관 조항이 여러 내용을 포함하고 그것의 분리가 가능함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문제의 면책조항에는 경과실에 따른 면책조항과 중과실에 따른 면책조항이 합쳐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법원이 약관의 조항을 자의적으로 분할하여 해석·적용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을 허용하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한 약관의 사용을 방지한다는 약관규제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따르면 사업자는 약관 조항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법원이 합법적인 한계까지 축소해석해 줄 것이라 기대하게 되므로, 결국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은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작성하게 하는 유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조항의 일부 내용이 무효인 경우에도 합법적인 내용이 유지되도록 수정 해석하는 것이 고객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① '잔부 유효 원칙'은 '조항'들을 각각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전제합니다. 그래야 무효로 할 조항은 무효로 하고 유지할 조항은 유지할 테니까요.

② 그렇다면 조항의 '특정 내용'에 대해 '잔부 유효 원칙을 적용'하는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의 경우도 동일하게 조항의 내용들을 각각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이러한 관점에 대한 비판 내용이 나옵니다.

(1) 법원이 약관의 조항을 자의적으로 분할, 해석하면 안 된다.

(2)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을 허용하면 불공정 약관의 사용을 방지한다는 약관규제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1)의 내용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이 가는데, (2)의 내용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해를 못했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냥 정리만 해놓고 넘어가도 됩니다.

④ 굳이 (2)의 이유를 따지자면 이렇습니다.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이라는 것은 결국 조항의 특정 내용을 살짝 바꿔서 적용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뭐 불공정한 조항 내용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 바꾸면 되니, 사업자들이 조항 내용을 불공정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무서움을 크게 느끼지 않겠지요. 반대로 조항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었을 때 그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되어 버린다면, 불공정한 내용을 넣지 않기 위해 사업자는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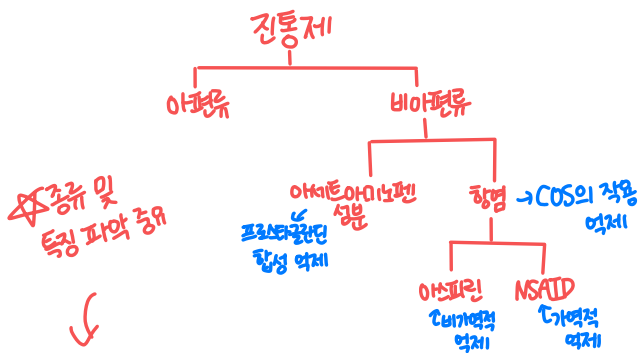
⑤ 여기까지는 효력유지적 축소해석 반대측의 주장이고, 마지막에 찬성측 주장도 나옵니다. 찬성측 주장은 간단합니다. 고객입장에서 봤을 때 조항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조항을 아예 무효로 해버리는 것보다는, 문제가 되는 부분만 수정해서 조항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니 '그럴수도 있겠구나'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성취한다.’

3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노계가」는 작가가 은거하던 노계의 수려한 풍광과 정취를 노래하고 있다. 작가는 자연에 은거했던 고사의 인물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만족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한편, 임진왜란을 직접 체험했던 작가는 임금에게 충성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충군애민의 마음으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희구(希求)하고 있다.

- ① 자연에 은거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자롱'이나 '저익'과 같은 고사의 인물들과 동일시하는 방식으로 드러냈군.
② 자연에서 누리는 흥취를 '살진 고사리', '붕어회', '누치와 꿩고기' 등 미각을 돋우는 소재들을 통해 드러냈군.
③ 화자가 누리는 삶이 임금의 은혜에서 비롯됨을 '이 힘이 뉘 힘이고 성은이 아니신가'와 같은 문답의 형식을 통해 드러냈군.
④ 전쟁이 끝나고 힘겹게 살아가는 백성들에 대한 연민을 '남모르는 눈물을 하늘 아래 뿌린다는' 감각적 표현을 통해 드러냈군.
⑤ 화자의 소망을 '만세를 누리소서'나 '격양가를 불리소서' 등과 같이 유사한 문장을 변주하여 드러냈군.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통증을 진정시키는 약을 진통제라고 한다. 진통제는 아편류와 비아편류로 나뉘며, 통증 자극을 대뇌에 전달하는 신호 전달기전 등을 방해하여 통증을 완화한다. 아편류 진통제는 인체가 통증 자극을 받으면 체내에서 분비되는 엔도르핀 같은 역할을 한다. 엔도르핀은 중추 신경계와 말초 신경계에 분포하는 아편 수용체와 결합하여 통증 자극이 대뇌로 전달되는 것을 막는 물질이다. 아편류 진통제는 효과가 매우 높지만 중독성이 있고 자주 사용하면 내성이 생겨 약효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비아편류 진통제는 진통 및 해열 효과가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제와 진통 및 해열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염증 반응까지 제어하는 항염 진통제로 나뉜다. 비아편류 진통제는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억제하여 약효를 발휘한다. 프로스타글란딘은 인체의 거의 모든 조직의 세포막에서 고리형 산소화 효소(COS)의 촉매 작용에 의해 합성되는 지질 성분의 생리 활성 물질을 통칭한다. 프로스타글란딘은 여러 종류가 있고 종류마다 기능이 다르며, 같은 종류라도 어떤 수용체에 결합하느냐에 따라, 혹은 어떤 부위에서 합성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 프로스타글란딘은 통증 자극의 전달을 촉진하거나, 위 점막을 보호하거나, 혈전을 생성하여 출혈을 멈추게

하거나, 체온 상승을 일으키거나, 혈관을 확장하거나, 염증 반응을 매개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한다. 프로스타글란딘의 다양한 기능 /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제는 그 작용 기전이 아직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다. 다만 중추 신경계에서 통증 자극의 전달을 촉진하거나 체온 상승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주로 억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른 진통제에 비해 부작용이 덜하지만 다량으로 복용하면 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항염 진통제에는 살리실산으로 제조되는 아스피린과 살리실산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물질로 제조되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 진통제(NSAID)가 있다. 아스피린과 NSAID는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부위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촉매하는 COS의 작용을 특별히 억제하여 진통 효과를 낸다. 그런데 COS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그중 COS-1은 두뇌, 위장, 심장 등 대부분의 생체 기관의 조직에서 항상 발현되어, 위점막 보호와 혈전 생성 등에 관여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촉매한다. 또 COS-2는 생체 조직이 세균에 감염되거나 상처를 입는 등의 염증 자극이 있을 때 발현되어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촉매한다. 염증 반응은 내부나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 조직이 손상되었을 때 해당 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방어 기전으로, 통증과 발열 등의 증상을 수반한다. 아스피린과 NSAID는 COS-1과 COS-2의 작용을 비선택적으로 억제하여 염증 반응을 방지함으로써 통증을 가라앉힌다. 그러나 염증 반응과 무관한 COS-1의 작용까지 억제하여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아스피린과 NSAID를 장기 복용하면 위궤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COS-2의 작용만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진통제가 새로 개발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혈관 질환의 부작용을 낳는다. COS-2의 작용을 막아 혈관 확장에 관여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억제하면서, COS-1의 작용을 허용하여 혈전 생성에 관여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지속시킴으로써 혈관이 막힐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편 아스피린과 NSAID는 비슷한 효능을 가지면서도 전자가 COS의 작용을 비가역적으로 억제하고 후자가 COS의 작용을 가역적으로 억제한다는 차이가 있다. 가역적 억제에서는 반감기를 4~5회 거치면 약효가 거의 떨어져 억제되었던 COS가 다시 작용하게 되지만, 비가역적 억제에서는 새로운 COS가 발현될 때까지 COS의 작용이 억제된다.

* 혈전: 혈관 속에서 피가 응고하여 생긴 핏덩이.
* 반감기: 약물의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

- 38.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좋은 점이 있을까?
② 프로스타글란딘의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③ 아스피린이 COS의 작용을 비가역적으로 억제하는 기전은 무엇일까?
④ 항염 진통제를 장기 복용하면 위궤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은 왜일까?
⑤ COS-2의 작용만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진통제가 부작용을 낳는 이유는 무엇일까?

39.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①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COS-2가 작용해야 한다. ○
- ② 동일한 종류의 프로스타글란딘은 언제나 동일한 기능을 한다. X
- ③ 아편류 진통제는 중독성이 있어 자주 사용할수록 약효가 증가한다. X → 반대로 약효가 떨어진다.
- ④ NSAID는 살리실산으로 제조되는 진통제로 염증을 제어하는 효과가 있다. X → 살리실산으로 제조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 ⑤ 엔도르핀은 중추 신경계에 분포하는 아편 수용체와 결합하여 통증을 진정시키는 아편류 진통제이다. X

나 아편류 진통제가 엔도르핀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지, 엔도르핀이 아편류 진통제라는 게 아니다.

4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진통제 ㉡: 아스피린 ㉢: NSAID
- ① ㉠과 ㉡은 모두, 통증을 진정시키고 몸의 열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 ○ → 비아편류 진통제의 공통된 특징이다.
- ② ㉠과 ㉡은 모두,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촉매하는 COS-2의 작용을 억제한다. X → ㉠은 해상되지 않음.
- ③ ㉠과 ㉡은 모두, COS-1과 COS-2의 작용을 비선택적으로 억제하여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 → 지문 확인
- ④ ㉡은 ㉢과 달리, 염증 반응의 억제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이 반감기와 무관하다. ○ → 새로운 COS가 발현될 때까지임.
- ⑤ ㉡은 ㉠에 비해, 위궤양을 일으킬 가능성은 높은 대신 간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 ○ → 지문 확인

41.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윗글을 참고할 때, 기사의 ㉠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신문 ○○○○년 ○○월 ○○일

㉠ 저용량의 아스피린 복용이 심장 마비나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하루에 100mg가량의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COS-2보다 COS-1의 작용을 상대적으로 더 억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처방이 뇌혈관의 출혈로 야기되는 뇌출혈 같은 출혈성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더 높인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도 있어, 그 효능에 대해 의학자들도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다. (단, 진통 목적으로 복용하는 아스피린의 적정량은 하루에 500mg이다.)

- ① 심장의 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양을 줄이는 효과가 있겠군. ○ → (보기) 내용 참고
- ② 일회성이려면 위장에서 새로운 COS-1이 발현될 때까지 위 점막을 약하게 하겠군. ○ → 아스피린 '비가역적 억제'
- ③ 하루에 500mg가량의 아스피린을 복용한 것에 비해 혈관이 확장되는 것을 더 어렵게 하겠군.
- ④ 하루에 500mg가량의 아스피린을 복용한 것에 비해 조직 손상 시 발생하는 염증 반응을 줄이는 효과는 더 낮겠군. ○
- ⑤ 뇌혈관에서 혈전 생성에 관여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을 촉매하는 COS-1을 억제해 뇌출혈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겠군. ○

→ COS-1은 두뇌, 심장, 위장 등에서 대체적으로 발현해서

㉡ → 500mg가 약효가 상성적으로 더 클뿐 아니라 500mg일 때 COS-2의 억제가 더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신'의 내용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날마다 ㉠ 학교 집터에 '미장이'로 다니면서 일을 하였다. 남과 같이 버젓하게 일정한 노동을 못 하고 밤낮 뜨내기 벌이꾼으로밖에 돌아다니지 못하는 나에게는 그래도 몇 달 동안은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었다. 마는 **과격**한 노동이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쉬어 본 일은커녕 한 번이라도 늦게 가 본 적도 없었다. 원수같이 지글지글 타 내리는 여름 태양 아래에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감독의 말 한마디 거스르는 법 없이 고분고분히 일을 하였다. **체로 모래를** 쳐라, **불** 같은 태양 아래에 새까맣게 타는 **석탄**으로 '노리'를 **끓여라**, **시멘트**에다 **모래를** 섞어라, 그것을 노리로 반죽하여라 하여 쉴 새 없는 기계같이 휘돌아쳤다. 그 열매인지 선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들이 다지는 시멘트가 몇백 칸의 벌집 같은 방으로 변하고 친구들의 쟁쟁 울리는 꿀 소리가 **여러 층의 웅장한 건축**으로 변함을 볼 때에 미상불 우리의 위대한 힘을 또 한 번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어리석은 **미련통이들**이라 그것이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 나날이 자라 가는 괴물인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어쩔든 **콧구멍이 다 턱턱 막히는 시멘트 가루**를 전신에 보얗게 뒤집어쓰고 **매캐한 노린 냄새**와 더구나 전신을 한바탕 쪽 씻어 내리는 **땀 냄새**를 맡으면서 온종일 들볶아 치고 나면 저녁 물에는 정말이지 전신이 나른하였다. 그래도 **집안 식구들**을 생각하고 **끼넛거리**를 생각하면 마지막 힘이 났다. 일을 마치고 정신을 가다듬어 가지고 ㉡ 일인(日人) 감독의 집으로 간다. 샷전을 얻어 가지고 그길로 바로 술집에 가서 한잔 빨고 나면 그제야 겨우 제 세상인 듯싶었던 것이다.

술! 사실 술처럼 고마운 것은 없었다. 버쩍버쩍 상하는 속, 말할 수 없는 피로를 잠시라도 잊게 하는 것은 그래도 술의 힘이었다.

그날도 나는 술김에 열근하였었다. 다른 때와 같이 역시 맨 꿈무늬에 떨어진 김 서방과 나는 샷전을 받아 들고 나서자마자 한길 옆 ㉢ 술집에서 만판 먹어 댔다.

술집을 나와 보니 벌써 밤은 꽤 저물었었다. 잠을 자도 한잠 너그러지게 잤을 판이었다. 잠이라니 말이지 종일 피곤하였던 판에 주기조차 돌아 놓으니 사실이지 글자대로 눈이 스프르 내리감졌다. 김 서방과 나는 즉시 ㉣ **잠자리**로 향하였다.

잠자리라니 보들보들한 아름다운 계집이 기다리고 있는 분홍 모기장 속 두툼한 요 위인 줄은 알지 말아라. 그렇다고 어둡침침한 **행랑방** 하나 나에게는 없었다. 단지 내 몸뚱이 하나인 나는 서울 안을 못 돌아다닐 데 없이 돌아다니면서 노숙(露宿)을 하였던 것이다. (그래도 그것이 여름이었으니 말이지 겨울이었던들 꿈쩍없이 얼어 죽었을 것이다.) 따라서 세상에 못 볼 것을 다 보고 겪어 왔었다. 참말이지 별별 야릇하고 말 못 할 일이 많았다. 여기에 쓰는 이야기 같은 것은 말하자면 그중에서 가장 온당한 이야기의 하나에 지나지 못한다.

(중략)

그날도 나는 이유 없이—가 아니라 바로 말하면 바람 쐬이러—밤 장안을 헤매고 있었다. **장안의 여름밤**은 아름다웠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성취한다.”

저 자 이승모, 최상훈
펴 낸 곳 한국교육평가인증
전 화 02-3401-8900
홈페이지 www.kydi.co.kr